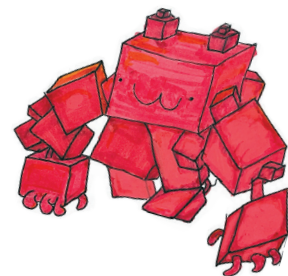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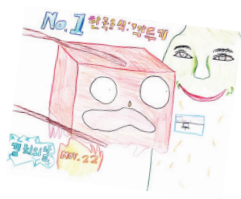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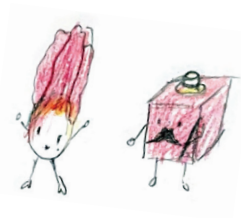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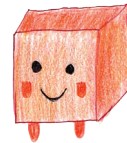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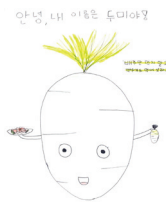


다솜 사랑

Dasom Sarang

2024-2025
통권 제38호



다솜 한국학교

www.dasomks.org

다솜사랑

Dasom Sarang
2024-2025 다솜한국학교 교지
(통권 제38호)

다솜한국학교 Yearbook
발행인/편집인: 최미영
편집위원: 최미영, 박은경, 권미정, 안지은, 조은미, 정희조, 조은아, 김원구
디 자 인: 안지은
사 진: 김원구
표지 다솜사랑 글씨 디자인: 최하은
발 행 일: 2025년 8월 (통권 제38호)
주 소: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홈페이지: www.dasomks.org
이 메 일: info@dasomks.org
인 쇄: Better Yearbook (1-888-550-8604)

다솜사랑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 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의 교지로 연간 1회 출판하며 본 한국학교의 역사 기록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본 교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 등은 다솜한국학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 복제나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Dasom Korean School,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04	인사말 _ 교장 최미영
	05	격려사 _ 이사장 전남진
	06	축사 _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 허혜정
	07	축사 _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권예순
	08	다솜한국학교 연혁
	09	다솜한국학교 학사보고 및 수상자 명단
각 반 소개 및 학생 작품	10	기쁨반 _ 교사 안지은
	18	충성반 _ 교사 정희조
	30	화평반 _ 교사 권미정
	40	믿음반 _ 교사 조은미/조은아
	50	열매반 _ 교사 박은경
	64	특별활동반 소개
학생 및 학부모 글	66	졸업생 글 모음
	70	졸업생 부모님 글
이모저모	72	다솜의 자랑, 보조교사들의 이야기
	76	한국 역사문화 강의
	79	행사 모음
	88	보도자료 모음
	99	다솜 앨범
	104	다솜한국학교 보조교사 및 특별활동 교사
	105	다솜한국학교 교사 및 이사진
	106	다솜 온라인 등록 안내
	107	다솜한국학교 개강 포스터

AI 시대의 한국학교는...

교장 최미영



개교 21주년이었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매주 이어지는 학사 일정과 다양한 행사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실행해 왔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물론, 재미 한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교육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는 깍두기 답그기, 추석 꽃 송편 만들기, 그리고 큰 윷놀이가 꼽혔습니다. 특히 큰 학년 학생들은 6·25 참전용사와의 만남이 특별했다고 말합니다. 치열한 전투로 알려진 양구 ‘펀치볼(Punchbowl)’ 전투 이야기는 학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나예준, 윤지운 학생은 9년, 장시온 학생은 8년 동안 다솜에서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만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다솜에 온 재용 학생도 함께 졸업합니다. 또한, 학생으로 시작해 3년간 보조교사로 봉사해 준 이현일, 남하은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다솜을 떠나게 됩니다. 학교를 떠나더라도 어디서든 재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지난 1년은 AI 시대 속에서 한국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체성 교육은 무엇보다도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가르칠 역량 있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우리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솜한국학교가 계속 성장해 제자들이 자라고 결혼해 자녀를 보내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다니는 세대가 이어지는 학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오늘도 우리 다솜한국학교에 희망이라는 나무를 심으며, 추억과 행복을 나누고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2025학년도 다솜 교지 발간을 축하하며

다솜한국학교 이사장 전남진



2024-2025학년을 마무리하며 ‘다솜’ 교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는 일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복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 자료가 되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교지는 다솜의 성장과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하나의 역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다솜의 다양한 활동은 지역 주간지나 신문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고, 역사문화 관련 단행본을 통해 외부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의 교육활동과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교지는

학교 공동체의 노력과 열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기록물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후대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개인이든 단체이든 이름에 걸맞은 업적과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바울 사도의 발자취(Footsteps of Apostle Paul)’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1차부터 3차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서신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여정을 따라 현재의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비록 당시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곳곳에 남아 있는 잔해(ruins)와 기록들을 통해 그의 삶과 열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과 기록이 현실 속 장소와 일치하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과 함께, 복음을 향한 바울의 헌신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없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지금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열정과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을 마감한 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어떤 영향력을 남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는 고유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솜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조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전하며, 한국어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는 학교로 길이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잘 해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지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학기 동안 성실히 학업에 임한 학생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솜을 이끌어오신 교장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찬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로 오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다솜 사랑 발간을 축하드리며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 허혜정



다솜한국학교 가족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한 학년도를 의미 있게 마무리 하며 <다솜 사랑>을 발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때로는 주말에 달콤한 휴식을 취하며 학업을 게을리하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조금은 낯선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버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멋지게 한 학년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가 저마다의 자긍심으로 자리하였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여러분,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올해 이렇게 또 한 학년도가 마무리되며 학생들이 졸업을 맞이하고 올해의 교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일과 후학을 양성하는 숭고한 일을 소명으로 알고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한국 동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한글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며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로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다솜한국학교의 <다솜 사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배움의 장이 되어준 다솜한국학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권예순



사랑과 정성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하고 계신 다솜한국학교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스무 해 넘는 걸음을 걸어온 다솜한국학교는 이름처럼 ‘사랑(다솜)’의 정신을 품은 교육공동체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내실 있는 한국어, 문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학구적이며 역사 의식이 투철하신 최미영 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뜻을 함께 모은 헌신적인 교사들이 조화를 이루며 운영하는 다솜한국학교는, 전세계 주말한국학교의 모범이 되는 내실 있는 교육기관이라 확신합니다.

김치의 날, 삼일절, 설날, 추석, 운동회, 아리랑 챌린지, 한국의 시 등 한국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수업과 행사를 통해, 다솜한국학교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중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발간되는 한국역사문화 교재와, 작년에 출간하신 『스무살 다솜 이야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등의 발간물은 귀교의 깊이 있는 교육 철학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2024-2025학년도에도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따뜻한 배움의 장을 만들어 주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솜한국학교가 앞으로도 사랑이 흐르고, 정체성을 세우며,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육 공동체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도 그 뜻깊은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솜한국학교 2024~2025학년도 연혁

2024년 가을학기	
7월 18일~20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42회 학술대회 참석 (Philadelphia, PA) - 개교 20주년 표창 수상
8월 17일	1차 교내 교사연수회
8월 24일	2차 교내 교사연수회, 보조교사 연수회
8월 24일	개교 20주년 기념 백서 <스무 살 다솜 이야기-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 출판기념식
9월 4일	3차 교내 교사연수회
9월 7일	2024~2025학년도 개강식, 박은경 교감, 권미정 교무 취임, 박준우, 안아라 보조교사 임명
9월 14일	추석 행사 (송편 빚기, 추석 어휘를 찾아라, 엉덩이 씨름, 팔씨름, 무릎 씨름)
9월 21일	특활 시작 (소고반, 사물놀이반, 바느질반)
10월 19일	독도의 날 행사 (강의: 조은미 교사)
11월 9일	역사문화 강의 I (제목: K-Food 김치의 날, 강의: 권미정 교무, 시범: 김미희 강사, 깍두기 담그기 활동)
11월 23일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행사 및 퀴즈대회 (주최: SF 총영사관, 축하: 임정택 총영사관, 강의: 나성덕 부총영사님, Donald Reid, 화평반, 믿음반, 열매반 학생들이 참여)
11월 30일	추수감사절 휴강
12월 14일	보조교사 사은회 (권민우/민호 졸업생의 어머니, 박준우 보조교사의 어머니, 남하은 보조교사의 어머니의 식사 준비, 이사장님 선물 증정과 선생님들의 감사의 말씀 나누기)
12월 14일	원은경 교감 선생님 퇴임식- 지난 2006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교사, 교무, 교감으로 헌신 봉사하였고, 계속 재무로 봉사해 주시기로 함
12월 14일	11번째 역사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Proud Republic of Korea> 출판 기념식
12월 21일	겨울방학 시작 및 교사회회의
1월 18일	겨울 방학 후 개강
1월 25일	가을학기 종강, 성적표 배부, 설 행사 및 민속놀이 축제 (강의 및 진행: 박은경, 안지은 교사)
2025년 봄학기	
2월 1일	봄학기 개강
2월 16일	역사문화 강의 II (제목: K-문학 시, 강의: 박은경 교감, 풀꽃 시인 나태주의 '풀꽃', 민족 시인 윤동주의 '서시', 고려 충신 정몽주의 '단심가'를 공부함)
3월 1일	삼일절 106주년 행사 (강의: 안지은 교사) 및 대형 태극기 행진
3월 15일	개교 21주년 기념 시화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운동회 사회: 정희조 교사)
3월 22일	제 29회 NAKS 한국어 시험 (NKT) 실시 -믿음반과 열매반 응시
4월 5일	역사문화 강의 III (주제: K-음악 아리랑 챌린지, 강의: 정희조 교사, '아리랑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내 다른 한국학교 학생들에게도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아리랑 챌린지'를 시작함. 팀별 노래를 개사하여 쇼츠 영상 만들기 활동)
4월 19일	<북가주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믿음반 김이룬 학생 수상 (희망의 빛 상)>
5월 11일	NAKS-NCAL 교사연수회 참석 (강사: (사)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심옥주 원장,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자 김주혜 작가)
5월 17일	2024~2025학년도 종업식과 졸업식 (오전 10시,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본당) • 졸업생: 나예준, 윤지윤, 장시은, 김재용(수료), 이현일(명예졸업) • 이사장상 및 장학금 (10학년 이상 재학중인 보조교사 중 80시간 이상 봉사한 학생들 대상): 이현일, 남하은, 장하진, 오태양, 박준우, 안아라 • 미국 대통령 봉사상: 남하은, 이현일, 장하진, 오태양, 박준우, 안아라 • 고등학교 졸업 장학금: 남하은, 이현일 • 1년 개근상: 김이든, 송하담, 송해담, 장예림, 정예나, 정예서 • 1년 정근상: 나재연, 송예담, 송주담, 이주환, 장예진 • 우등상: 김지아, 나재연, 박채린, 윤종현, 장예진 • 모범상: 김이룬, 명소정, 이하울, 장예림, 정예나, 조다나 • 북가주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김이룬 (희망의 빛 상) •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상: 장하진, 오태양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리더상: 이현일, 남하은, 장하진, 오태양, 박준우, 안아라
7월 18~20일	제4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주제: 한류 융성시대와 한국학교의 재도약, Dallas, TX)
8월 14~16일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주말한국학교 역량 강화 순회연수' (주최: 다솜한국학교, 강사: 강용철, 김차명, 문영숙)

다솜한국학교 2024~2025학년도 학사 보고

반 명	교 사 명	2024~2025학년도 학생 명단
기쁨반	안지은 (보조교사: 오탈양)	김이든, 윤종현, 정예나, 한제인
충성반	정희조 (보조교사: 남하은, 박준우)	김지아, 바장이 마리웅, 송해담, 정에서, 장예림, 정우빈, 조경민, 조아영, 최하준
화평반	권미정 (보조교사: 안아라)	김재희, 명소정, 송하담, 이서윤, 이주환, 장예진, 한서진
믿음반	조은미/조은아 (보조교사: 장하진)	김이룬, 나재연, 송주담, 박주연, 윤세인, 이정윤, 이재원, 이하울, 정우주
열매반	박은경 (보조교사: 이현일)	김재용, 나예준, 박채린, 송예담, 안아민, 윤재윤, 윤지윤, 이서준, 이준, 장시온, 조다나, 조새린
보조교사	최미영	이현일, 남하은, 장하진, 오탈양, 박준우, 안아라

다솜한국학교 2024~2025학년도 수상자 명단

졸업생	나예준, 윤지윤, 장시온, 김재용(수료), 이현일(명예졸업)
이사장상 및 장학금	이현일, 남하은, 장하진, 오탈양, 박준우, 안아라
고등학교 졸업 장학금	이현일, 남하은
1년 개근상	김이든, 송하담, 송해담, 장예림, 정예나, 정에서
1년 정근상	나재연, 송예담, 송주담, 이주환, 장예진
우등상	김지아, 나재연, 박채린, 윤종현, 장예진
모범상	김이룬, 명소정, 이하울, 장예림, 정예나, 조다나
북가주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김이룬 (희망의 빛 상)
대통령 봉사상(PVSA)	이현일, 남하은, 장하진, 오탈양, 박준우, 안아라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상	장하진, 오탈양
재미한국학교학교협의회 차세대 리더상	이현일, 남하은, 장하진, 오탈양, 박준우, 안아라

기쁨반



담임 교사 안지은



보조 교사 오테양



2025년 을사년 설날

2024-25학년도 기쁨반에는, 작년 사랑반에서 한글 기초를 마치고 올라온 사랑스럽고 귀여운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 다시 만난 꼬마 친구들은 키도 쑥쑥 자라고 마음도 훌쩍 자라 있었지요. 한 해 전만 해도 낯설고 조심스럽게 한글 자모를 따라 쓰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책을 읽고 글을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담임 선생님을 여러 번 감동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ㄴ/ㄷ]와 [ㅏ/ㅓ] 같은 비슷한 모음들을 헷갈려하며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느새 글자를 술술 읽고 또박또박 쓰는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말하기와 듣기에는 익숙했지만, 글을 쓰고 읽는 활동에는 다소 서툴렀던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소리나는 대로 용기 있게 적어보며 ‘나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가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한글 낱말을 하나하나 모아 문장을 만들고, 문장에 꾸며 주는 말을 더해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표현하는 기쁨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배워갔습니다. 글쓰기 수업 시간마다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고 그림까지 정성껏 그려 넣는 모습은 매번 감탄을 자아냈지요. 단어와 문장이 늘어갈수록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 듯했습니다.

기쁨반은 올해 가장 어린 학급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하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질문하는 용감한 학급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수업에서도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담임 선생님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 만큼 자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함께 웃고 자라는 기쁨반의 따뜻한 분위기가 한 해 동안 이어져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가능성이 빛나는 기쁨반!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스스로의 세계를 넓혀가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놀라움을 보여줄 여러분의 성장을 기대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기쁨반!

담임 교사 안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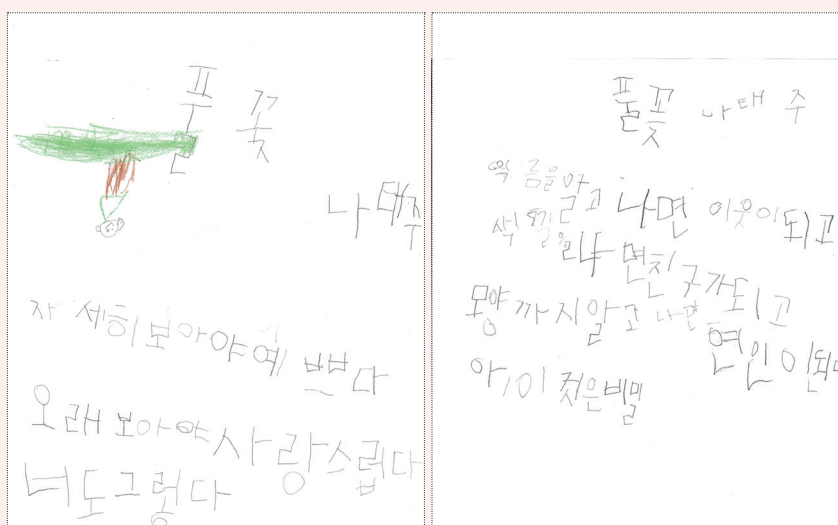
김이든



[상상일기]



[독도 모형]



[나태주 시인의 '플꽃' 시화 그리기]



플꽃은 예뻐요.

[시 쓰기] 플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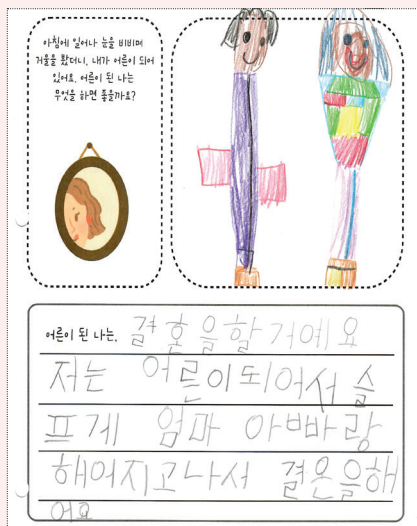
기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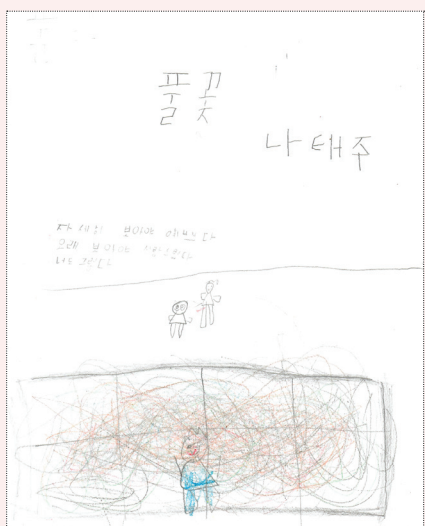
윤 종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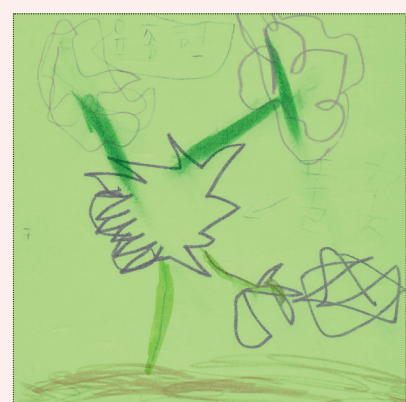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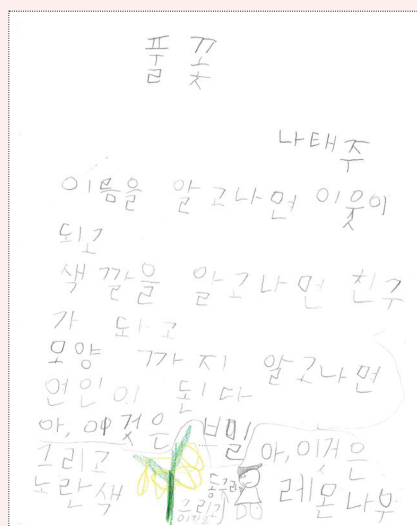
[상상일기]



[독도 모형]



[나태주 시인의 '꽃' 시화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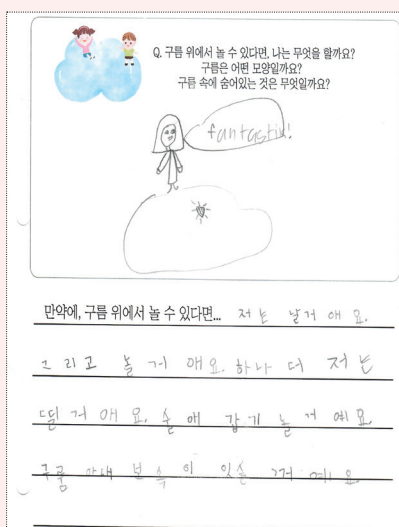


꽃은 흙에서 자란다.
꽃은 천천히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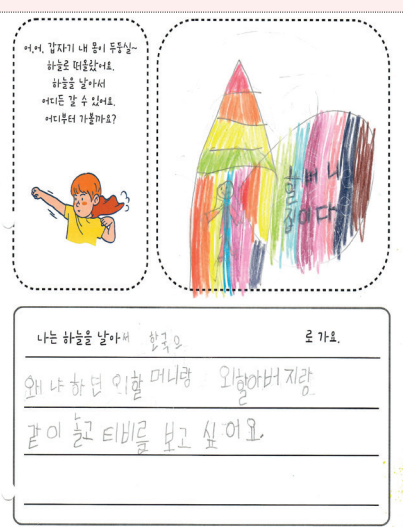
[시 쓰기]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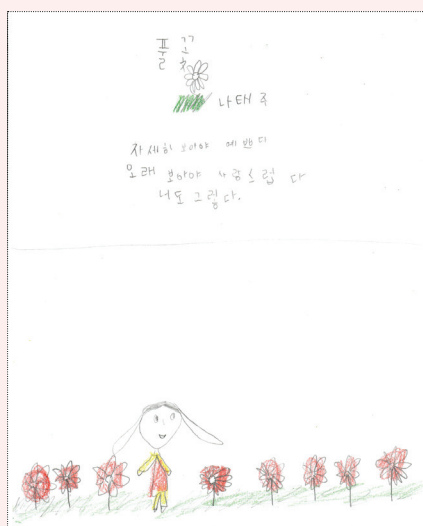
정 예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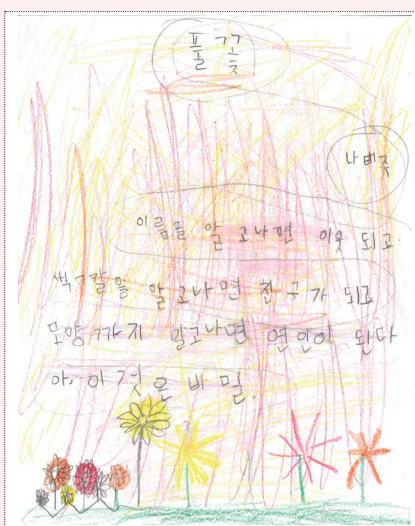
[상상일기]



[독도 모형]



[나태주 시인의 '꽃' 시화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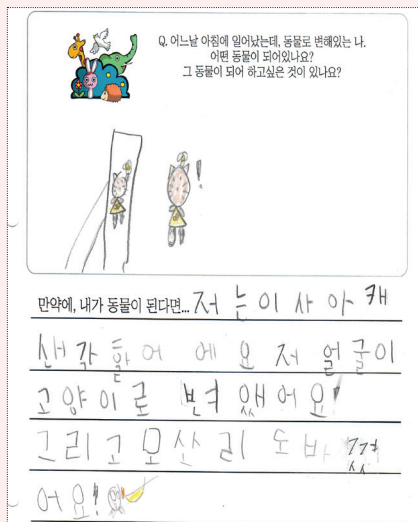
꽃이 예뻐요.

[시 쓰기]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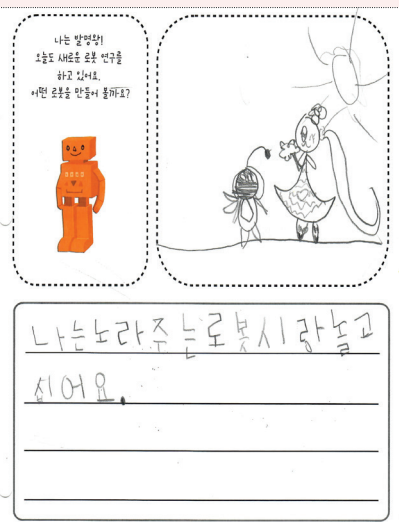
기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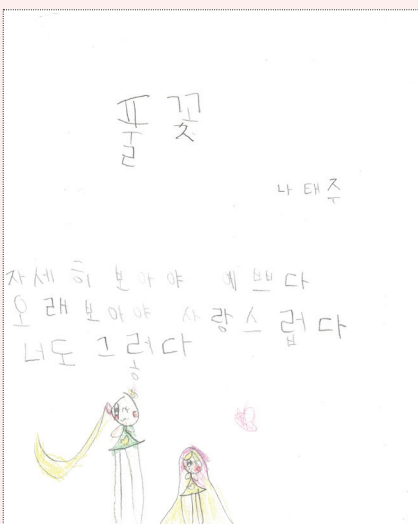
한 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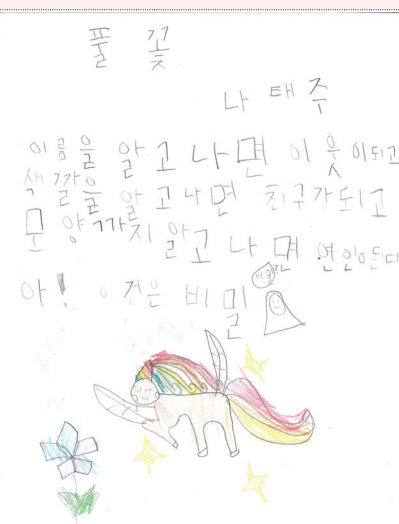
[상상일기]



[독도 모형]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화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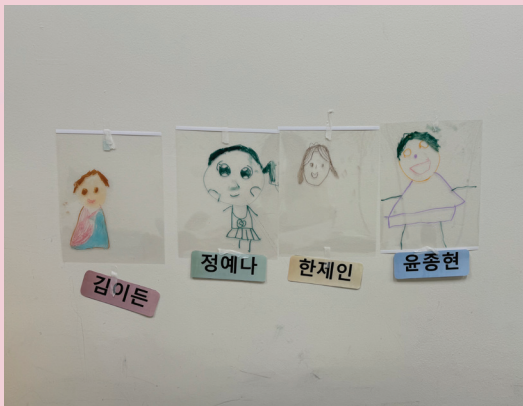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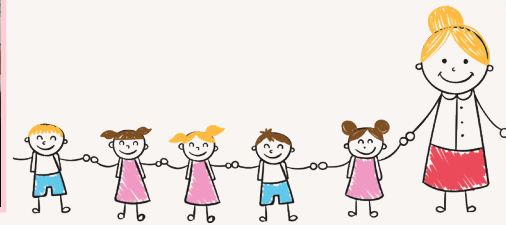


[시 쓰기] 풀꽃

기쁨반 활동



[개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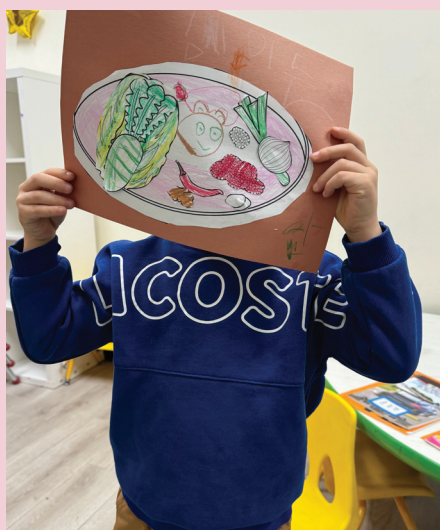


[활동] 개강식에서 다시 만난 우리.
여름방학의 공백 때문에 잠시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내 친구가 그린 나', '친구의 이름을 찾아라!' 활동으로 다시 만난 기쁨의 시간을 가졌어요.

기쁨반 활동



[김치의 날] 깍두기 담그기



[김치의 날 활동] 배추김치를 만드는 순서를 알아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하나씩 살펴봤어요.

기쁨반
활동



[한글날] 훈민정음 책 만들기



[삼일절] 대한민국 만세!



[독도의 날] 독도에는 누가 살까?



[2025년 을사년 설날] 송편 빚기

충성반



담임 교사 정희조



보조 교사 남하은



보조 교사 박준우



2025년 을사년 설날

서로 도우며 즐거움이 배가 되었던 충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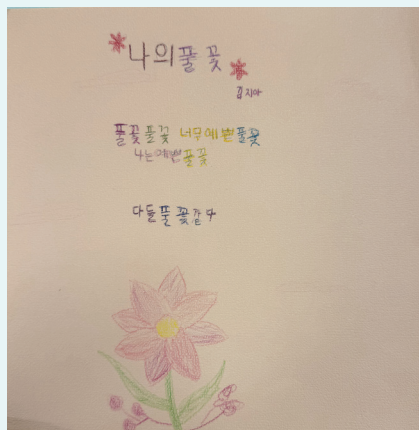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4-2025학년도 충성반의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들이 시간이 흐르며 어느새 서로를 따뜻하게 생각해 주고, 함께 배우고 서로 돕는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자라난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매주 새롭게 느꼈습니다.

우리 충성반 아이들은 다솜한국학교 안에서 배움의 기쁨을 나누며, 한글과 한국 문화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배워왔습니다. 친구가 어려워할 때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고 발표할 때 박수로 응원해 주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룹 활동과 발표 시간에도 인내하고 품어주려 애쓰던 순간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자신감으로 남아 있길 바랍니다.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 기도로 함께해 주시며 아이들과 공동체를 위해 애써주신 덕분에 이 모든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반 모든 친구들과 가정 위에 늘 평안과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담임 교사 정희조



김 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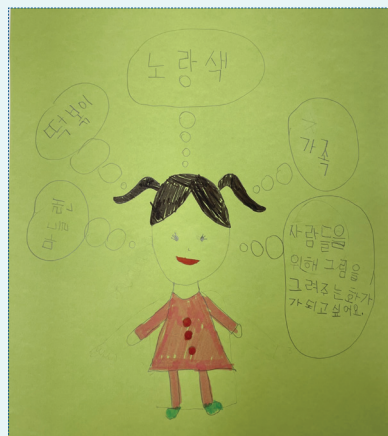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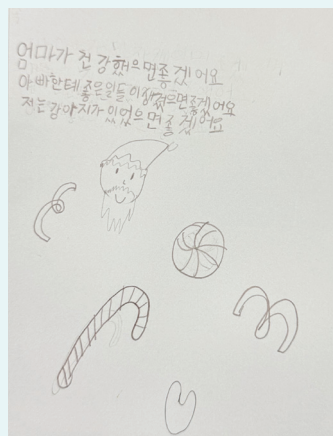
우리들의 꽃



내가 접은 한복으로 감사카드 써보기



소망 가득 담아 가족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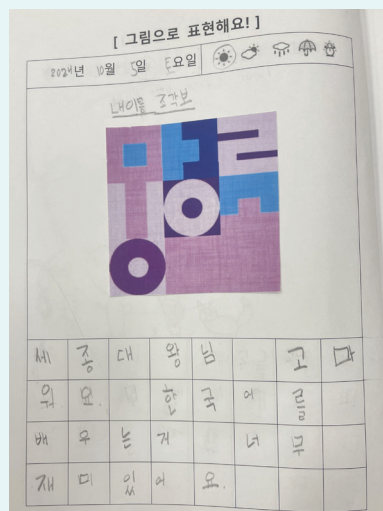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충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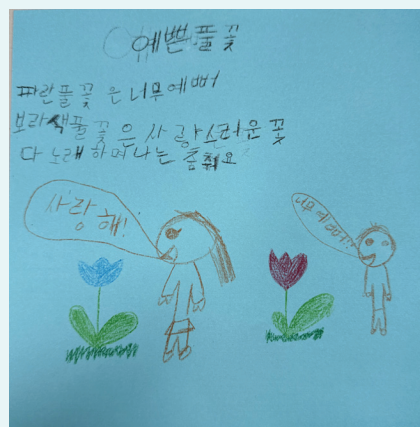
바장이 마리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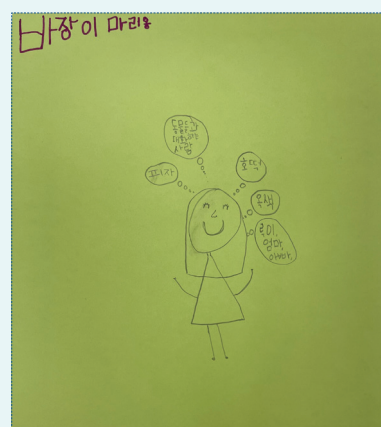
이름 조각보로 한글날 기념하기



문학 소년/소녀가 되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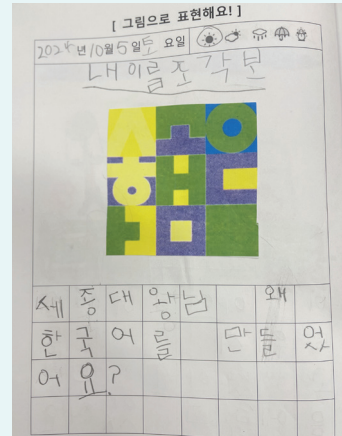
우리들의 꽃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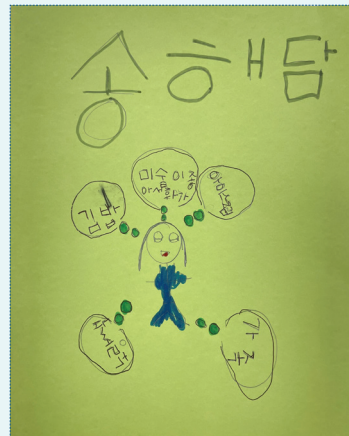
송해담



이름 조각보로 한글날 기념하기



우리들의 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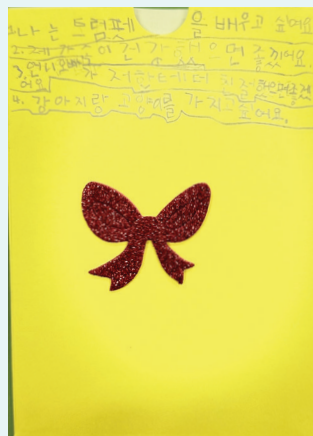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



문학 소년/소녀가 되어보자



소망 가득 담아 가족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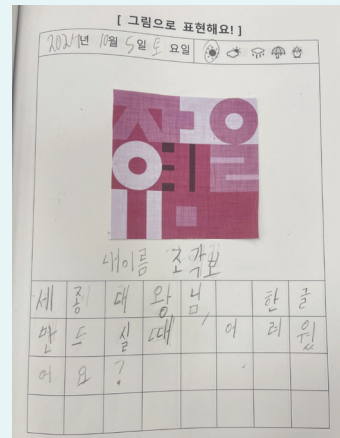


내가 접은 한복으로 감사카드 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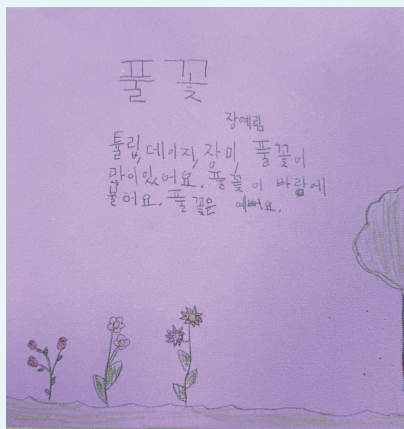
충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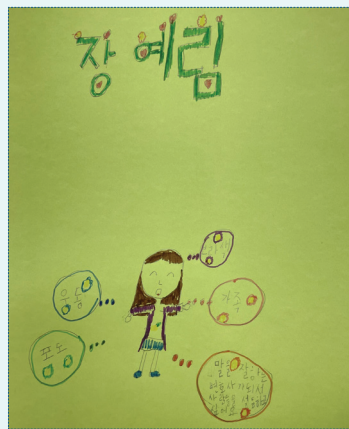
장 예 림



이름 조각보로 한글날 기념하기



우리들의 꽃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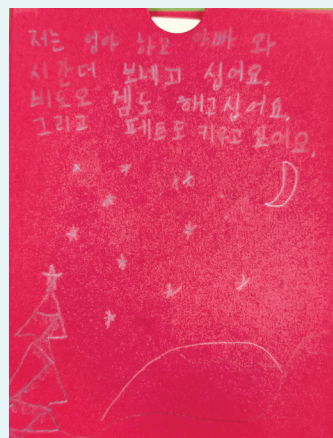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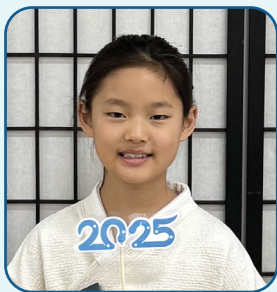
문학 소년/소녀가 되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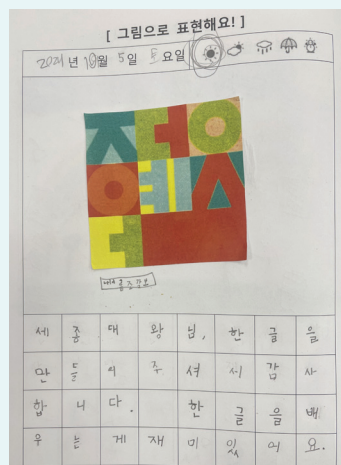
소망 가득 담아 가족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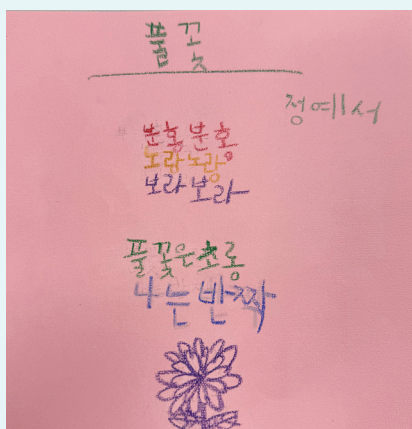
내가 접은 한복으로 감사카드 써보기



정 예 서



이름 조각보로 한글날 기념하기



우리들의 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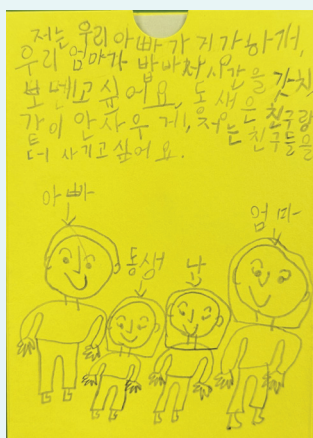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



문학 소년/소녀가 되어보자



소망 가득 담아 가족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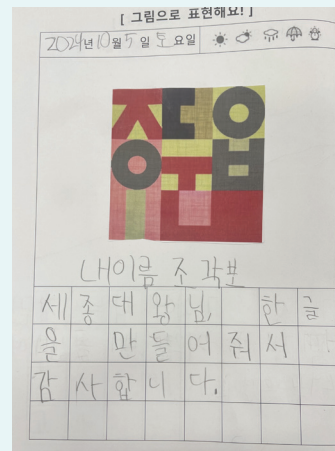


내가 접은 한복으로 감사카드 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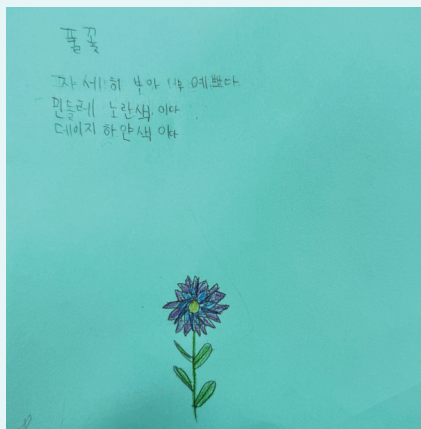
충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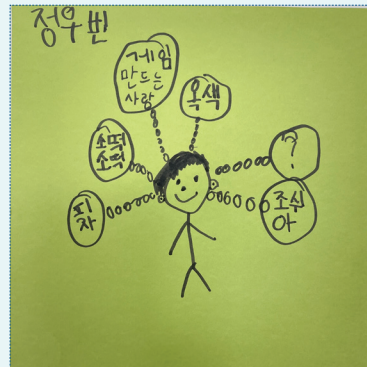
정우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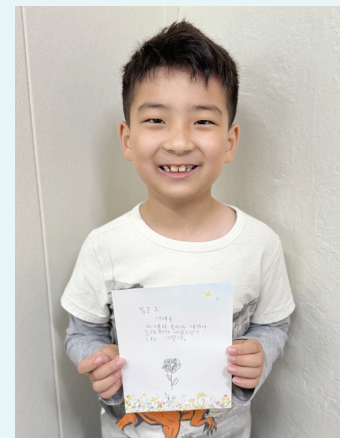
이름 조각보로 한글날 기념하기



우리들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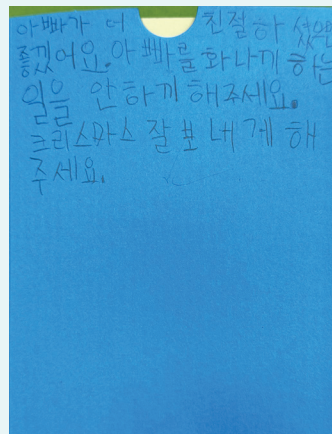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문학 소년/소녀가 되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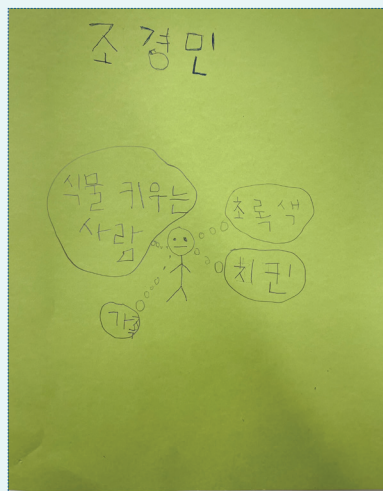
소망 가득 담아 가족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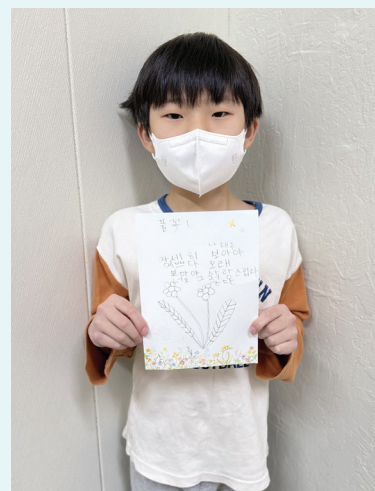
내가 접은 한복으로 감사카드 써보기



조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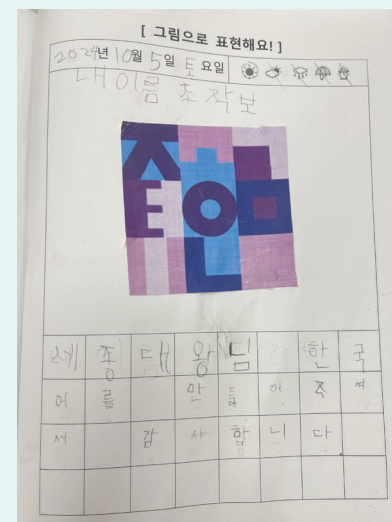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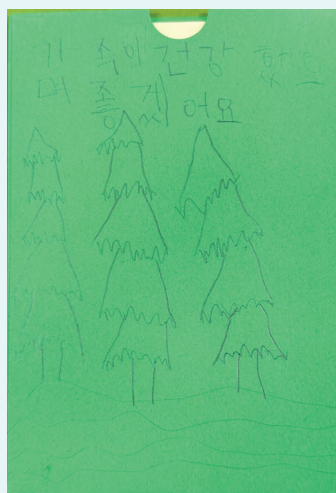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



문학 소년/소녀가 되어보자



소망 가득 담아 가족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이름 조각보로 한글날 기념하기

충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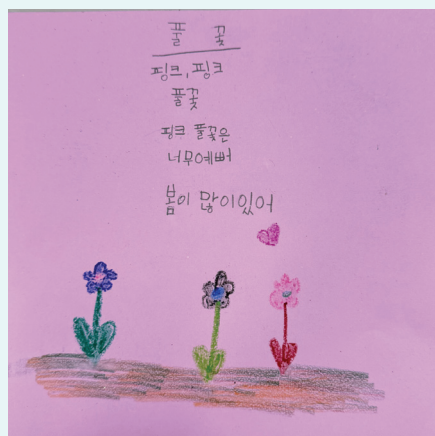
조 아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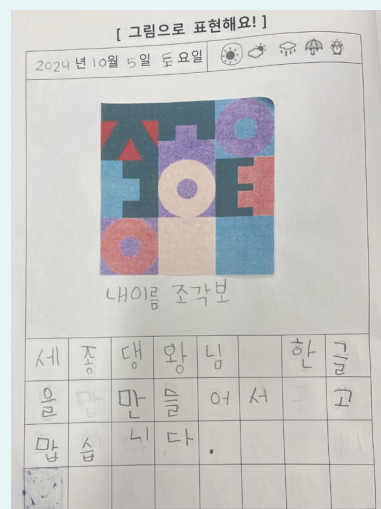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



내가 접은 한복으로 감사카드 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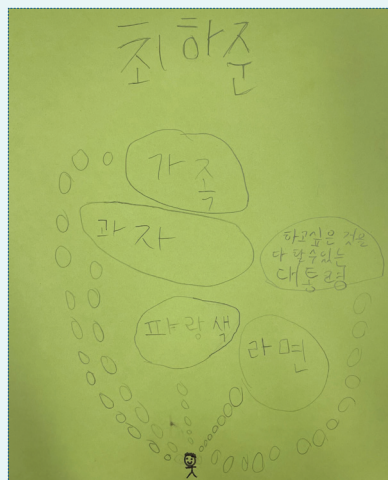
우리들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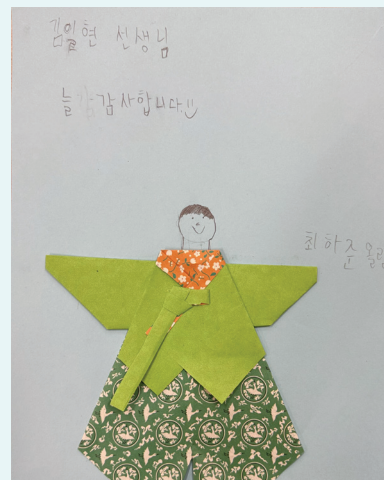
이름 조각보로 한글날 기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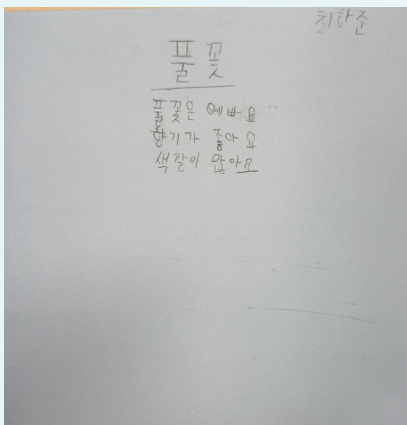
최 하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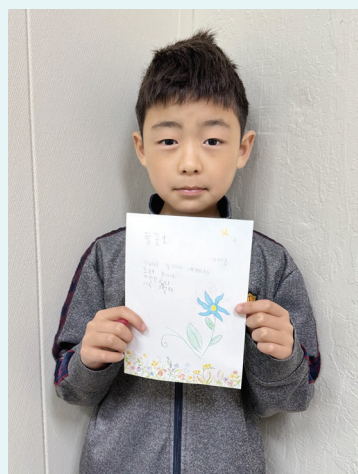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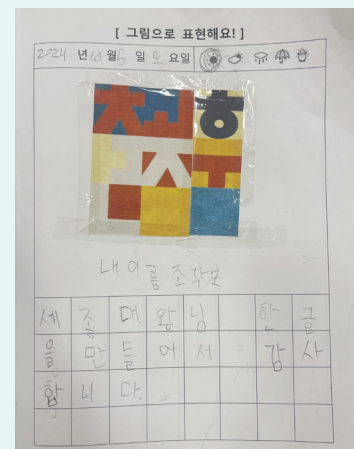
내가 접은 한복으로 감사카드 써보기



우리들의 플꽃



문학 소년/소녀가 되어보자



이름 조각보로 한글날 기념하기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김치의날 직접 담근 김치가 최고!"



"우리 취향 마음껏 담아 송편을 빚어요!"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화평반



담임 교사 권미정



보조 교사 안아라



2025년 을사년 설날

사소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웃음도 많은 화평반 친구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간 이고,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안아라 보조교사가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잘 쌓아갔습니다. 친근한 대화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한국어 사용을 도와주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며 편안한 보조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서 함께 함이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화평반에는 한국어 사용이 능숙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글줄이 긴 문장 들도 부담 없이 잘 읽는 학생들이지요. 그러나 한자어가 많은 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학년이 되어서 어려운 어휘의 책과 뉴스를 접하게 되었지만, 어휘의 뜻을 몰라서 문맥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 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한자를 통해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한자에 상당한 흥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여왕과 왕비는 같은 뜻이에요?" '王(임금 왕)'자를 배우던 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여왕(女王)은 '여자 녀(女)', '임금 왕(王)'으로 만들어진 단어야. 그러니까 '여자 왕'을 말해.

왕비(王妃)는 '임금 왕(王)', '왕비 비(妃)'를 사용하니 '임금의 아내'를 뜻하는 거란다."

학생들은 한자를 통해서 여왕과 왕비의 차이를 알고 나서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호칭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들을 보게 됩니다. '불 화(火)'를 배우며 캐릭터 버럭(Anger)이가 화낼 때마다 왜 머리에 불이 나는지 알게 되고, '마음 심(心)'을 배우며 소심(小心)이 캐릭터가 왜 그리 조심성이 많은지 이 해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한자를 접하며 자신이 아는 단어 중에서 같은 한자가 쓰인 것이 있는지 찾아내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참 열심히 함께해 주었습니다.

한자어의 뜻과 음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평반 학생들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풍부한 어휘력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 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연습했습니다. 화평반 학생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휘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기 보다 자신이 아는 한자로 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더 올라선 한국어 실력으로 더 즐겁게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어 관련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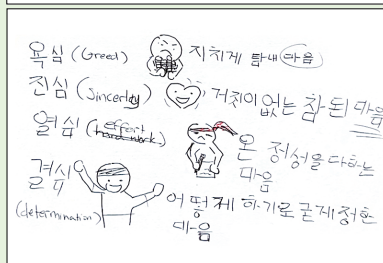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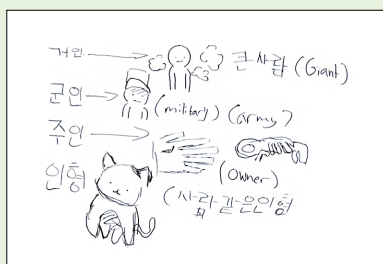
담임 교사 권미정



김재희

제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
예요. 선생님이 재미있고 친절하신게 좋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미술하고 게임에 대해 재미
있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글쓰기] 오늘 하루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한자어 카드]

1. 여름방학 즐겁게 보냈나요?	
2. 나의 여름방학을 떠올려 보세요!	
3. 생각나는 일과 관련된 아이션을 그립니다.	
4. 나의 여름방학 이야기를 써 보세요.	

이번 여름 방학에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바 DMZ를 봤어요. 정말 돌아 오는 길에
강에서 수영도 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특활수업_바느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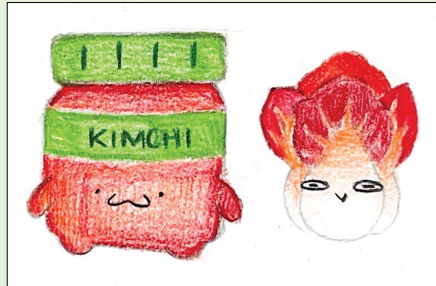
추석입니다.
송편을 잘 빚고,
예쁜 한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이 영 위하다면 최고의 날이 될 거에
요.
이런 날이 있다면 영위했으면
좋겠어요.

[시] 추석

화평반



명 소 정



[깍두기 캐릭터]



[한자어 카드]

오늘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꺼야. 아이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해 줄거야. 나는 학생들에게 곱셈과 나눗셈을 가르치고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나는 참 좋은 선생님이 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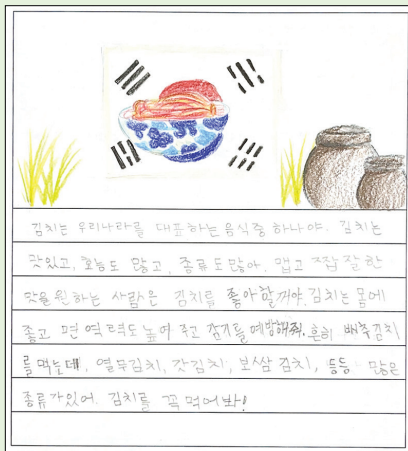
[글쓰기] 오늘 하루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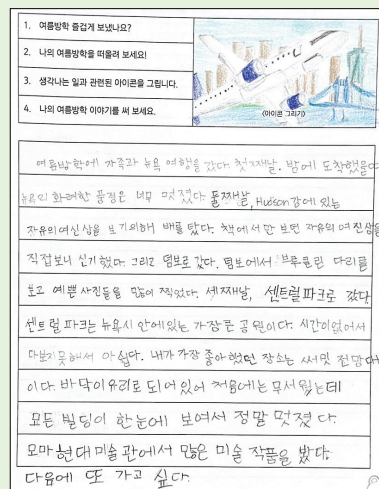
[을사년 연하장 만들기]

— 반가워 추석! —
보름달 아래 반달모양의 송편을
먹으며,
송편의 달콤함이 입안에서
사르르.
예쁜 한복 입고 빙글빙글 돌면
나도 웃고 가족들도 웃음꽃
피네.
이 좋은 날이 언제 다시 올까?
주석아, 내년엔 놀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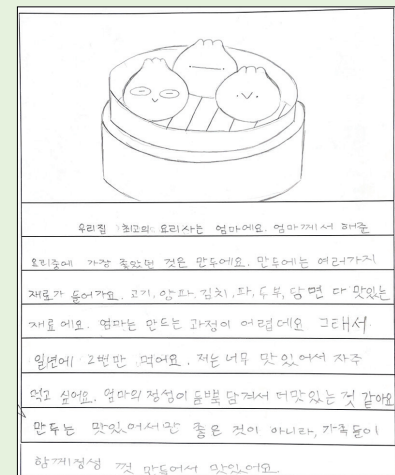
[시] 추석



[김치를 소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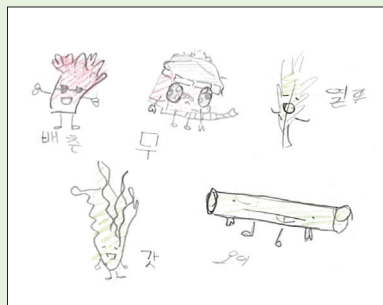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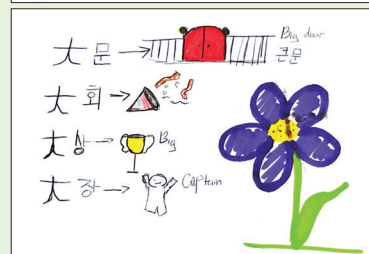
[최고의 요리사]



송 하 담



[김치 캐릭터]



[한자어 카드]

추석의 별칭은 하나 하나 행복으로 이어진다.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의 입에서 떡이 나온다.

웃는 얼굴을 거울은 태양이 미소를 전게 할 것입니다.

추석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내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 추석

김치는 중 말지만, 달콤해요. 맛있고 쌀과 찹이 있어요. 나의 친구들도 많이 먹고요.

[김치를 소개해요]

사골국 1팩 : 물을 1:1로 넣고 끓인다.

국에 끓으면 떡과 만두를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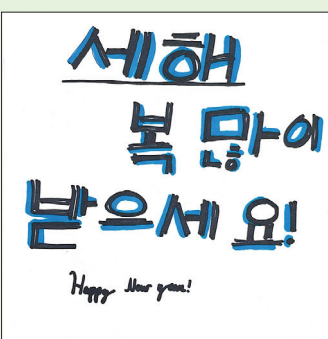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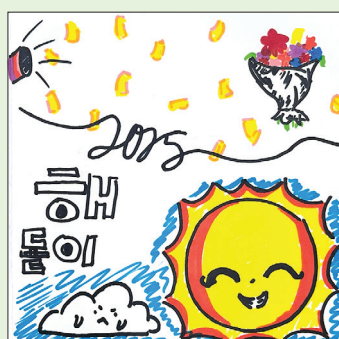
마늘,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춘다.

떡과 만두가 떠오르면 파아아 채썰고 넣고

1-2분 끓여내면 된다.

5. 먹어라.

[레시피] 떡국



[올사년 연하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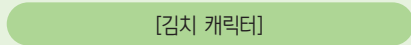
우리집 최고의 요리는 뭐야? 샌드위치일까?

제일 맛있어요. 밥이랑 채소가 골고랑 있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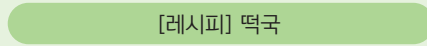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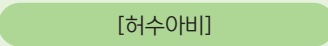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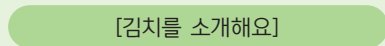
바람이 사랑이어요.

[최고의 요리사]

화평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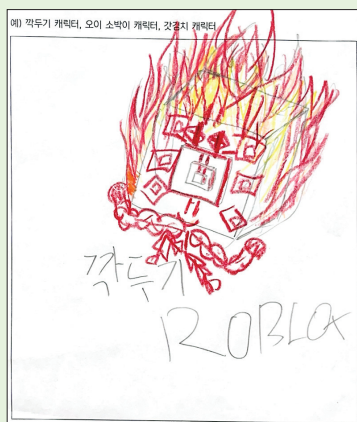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추천합니다]



이 주 환



[각두기 캐릭터]

대문 → A big door
 대회 → A big event
 대상 → A big prize
 대장 → A boss, leader (informal)

식구 → A family
 인구 → Population
 입구 → Entrance
 출구 → Exit

[한자어 카드]

김치는 채소로 만들어졌다. 그 채소들은 배추, 무, 파와 같은 것들이다. 김치는 조금 매콤하고 건강에 좋
 무 필요하다. 이제 같이 김치를 먹자. 나는 김치를 싫어
 해서 나는 안 먹을 거다.

[김치를 소개해요]

2. 김치의 날은 11월 22일입니다. 왜 이 날을 김치의 날로 정했는지 이유를 써 봅시다.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뜻을 만나
 탄생했다는 의미라고 해요.

3. 김치를 이용한 요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써 봅시다.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4. 김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배추김치, 막두기, 송박김치 외에 어떤 김치가
 더 있는지 이름을 써 봅시다.

파김치	부추김치
외박김치	갯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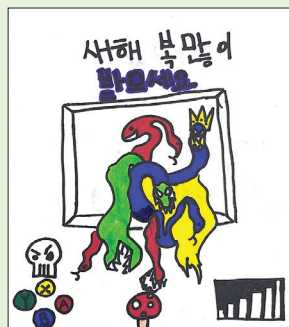
5. 오늘 우리는 막두기를 만들었습니다.
 막두기 만들기에 들어간 재료와 양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써 봅시다.

무	소금	마늘
설탕	새우젓	생강
고춧가루	파	양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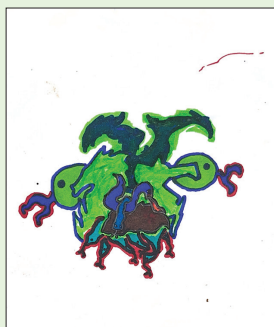
[김치의 날]

1. 사골육수, 말치 다시마 육수를 섞어 국물을 만듭니다.
 2. 끓는 국물에 떡을 넣습니다.
 3. 미리 지쳐둔 만두를 넣습니다.
 4. 달걀을 풀어넣고 파와 후추 가루를 넣어서 먹
 습니다

[레시피] 떡국



[올사년 연하장 만들기]



1. 여름방학 즐겁게 보냈나요? 네

2. 나의 여름방학을 떠올려 보세요!

3. 생각나는 일과 관련된 아이언을 그립니다.

4. 나의 여름방학 이야기를 써 보세요.

이 여름방학에는 한국에 다녀
 왔어요. 롯데월드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게임랑 티
 비도 많이 봤어요. 경주와 호대야
 일본도 갔어요. 미국에서 친구들과랑
 놀았어요. 여름방학은 정말
 재밌었어요.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우리는 화평반]

1.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2. 새로운 어휘와 맞춤법 익히기

백씨	올사년	해돋이
설날	새해	연하장

3. [알림] 다음 주를 준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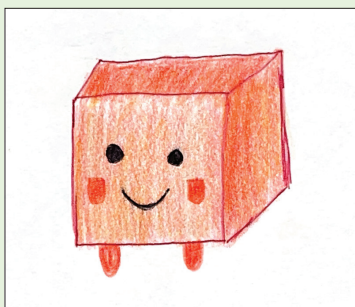
다음주 설날 행사 준비하기
 2. 다음 한복은 윤영, 화평반 학부 명
 숙제: 조식퀴즈, 한자어

[알림장]

화평반



장 예 진



[각두기 캐릭터]

오늘 하루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읽기예요. 그래서 읽기를 가르치고 싶어요. 역사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착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글쓰기] 오늘 하루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오이김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김치는 오이김치입니다. 오이김치는 오이로 만든 김치예요. 오이김치는 여름에 주로 먹습니다. 오이김치를 먹으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치를 소개해요]

재료: 소고기, 떡국 떡, 파, 소금, 후추 다진 마늘

① 소고기를 잘게 자르고, 냄비에 넣으세요.
② 올리브 오일을 붓고, 고기를 요리합니다.
③ 그 다음에,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④ 떡을 넣고, 후추와 소금을 넣으세요.
⑤ 파를 넣으세요.

[레시피] 떡국

우리집 최고의 요리는 저의 할아버님입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은... 김치 찌개입니다. 떡고, 단 음식을 좋아하니 김치 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드는 김치 찌개는 고기와 김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밥과 만두를 먹는데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뜨거울 때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뜨거운 밥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김치 찌개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고기와 김치를 많이 넣는 거 인 거 같아요.

[최고의 요리사]

1. 여름방학 즐겁게 보냈나요?
2. 나의 여름방학을 떠올려 보세요!
3. 생각나는 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립니다.
4. 나의 여름방학 이야기를 써 보세요.

여름방학에는 태세소에서 왔던 두 사촌들과 이모랑 이모부랑 같이 산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같이 호텔에서 노렸습니까 또 우리도 바다가도 갔습니다. 바다는 추웠는데 모래는 진짜 뜨거웠습니다. 동생은 주근 곳게도 차랐습니다. 사촌은 조금씩 물고기를 차랐습니다. 같이 산프란시스코로 가서 재미있었습니다.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스파이 학교입니다. 이 책은 진짜 신기한 미스터리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캐릭터는 스파이 학교를 다닙니다. 이 캐릭터가 나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미스터리 책이어서 좋아했습니다.

[추천합니다]

[우리는 화평반]

1. 지난 주 학습

참전용사, 노병, 한국 전쟁, 폐허, 경제 발전, 거수경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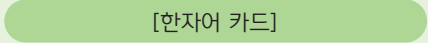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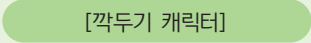
2. 새로운 이야기와 활동법 만들기

식구→식미	입구→입미	입구→스미
출구→출미		

3. [활동] 다음 주를 준비하세요!

다음 주: 반야스기 시험, 독화 (주변)
주제: 한자어, 반야스기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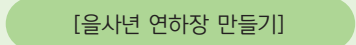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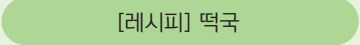
[알림장]



[글쓰기] 오늘 하루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시] 추석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첫 만남]



[순우리말 상징 그림 사진]



[한자어 수업]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깍두기 담근 날]



[한자어 골든벨]



[신나는 퀴즈 시간]

믿음반



담임 교사 조은아

보조 교사 장하진



2025년 을사년 설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자라나는 믿음의 배우터, 믿음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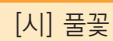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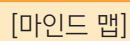
다솜한국학교는 단순한 언어 교육의 장을 넘어,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한국인의 뿌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믿음반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신앙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정성으로 교육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믿음반의 교육 방향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인내, 감사, 사랑, 소망과 같은 성경적 가치를 일상 언어 교육에 녹여내며, 학생들이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교실 안의 작은 대화에서부터 수업 활동 전반, 더 나아가 학기말 발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권정생 작가의 동화 강아지똥을 주제로 한 연극 발표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소외된 존재로 취급받는 ‘강아지똥’이라는 등장인물을 웃음의 소재로 접했지만, 이야기를 깊이 읽고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발표 준비를 넘어서, 공감, 배려, 협력,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사를 익히고 장면을 구성하며, 친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행문 단원에서는 자신이 다녀온 곳이나 가고 싶은 장소를 글과 말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다른 문화를 비교하며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활동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포용적 태도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다’라는 표현을 배우며, 이웃을 향한 감사와 위로의 말을 실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노래와 영상 속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작은 정성과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동물이나 식물의 자연 관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창조 세계의 순환을 배우며, ‘기다림’과 ‘성장’이라는 영적 덕목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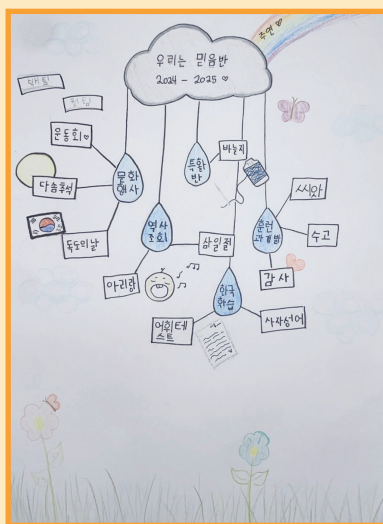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단지 지식이나 언어 능력만을 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자라나는 여정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은, 매 수업마다 감동과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솜한국학교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교사 조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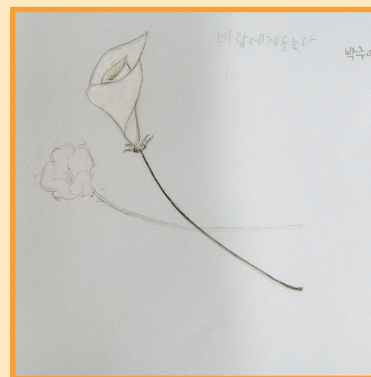




박 주 연



[마인드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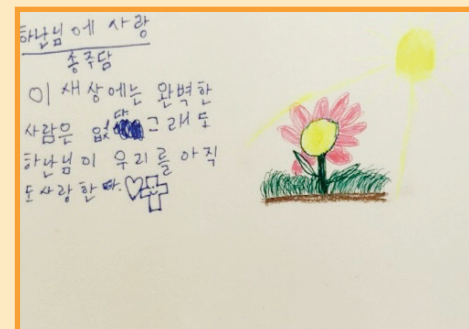
[시] 바람에게 듣는다



송 주 담



[마인드 맵]



[시] 하나님의 사랑



윤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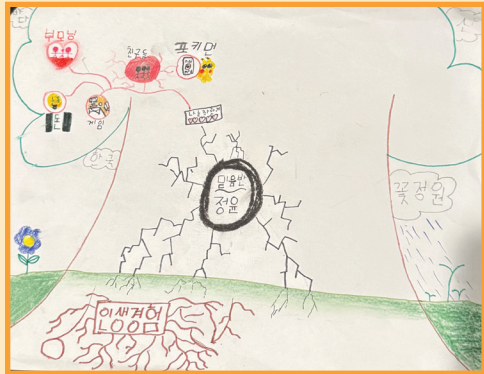
[마인드 맵]



[시] 모두 다 아름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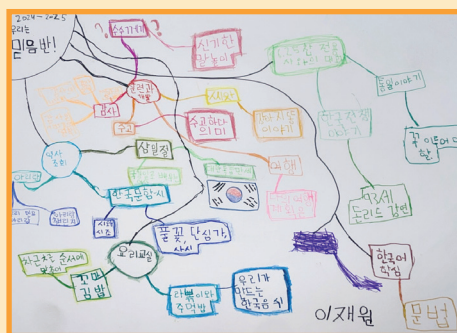
이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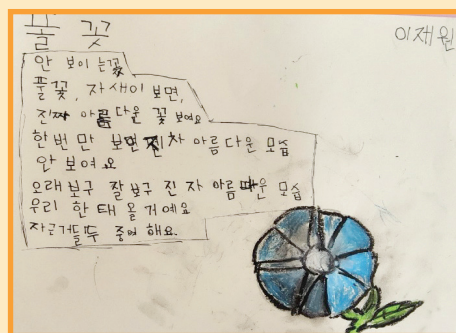
[마인드 맵]



이재원



[마인드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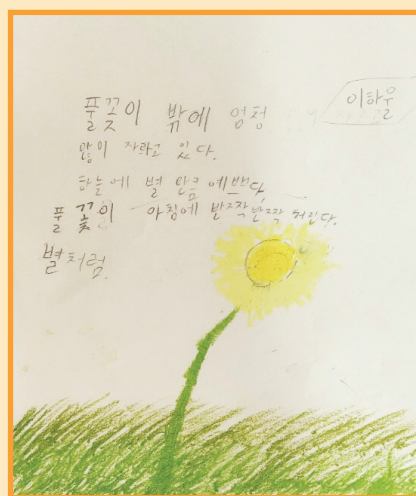
[시] 꽃



이하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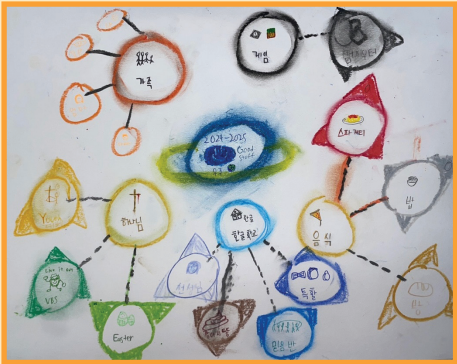
[마인드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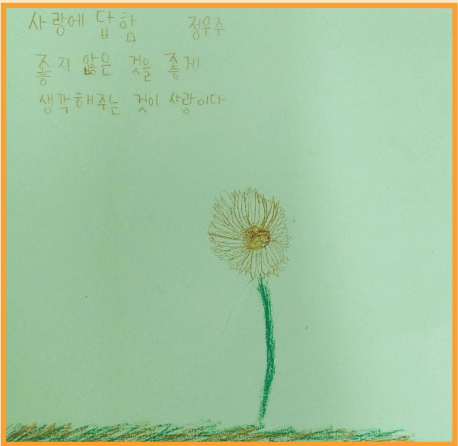
[시] 꽃



정우주



[마인드 맵]



[시] 사랑에 답함



민음반 활동사진 모음

[수업_ 감사]

소중한 감사

감사를 노래해요 (한글정의 활동)

1. 노래를 듣고 표현적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2. 노래와 관련된 문맥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표현할 수 있다.

3.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고, 매일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할 수 있다.

[1] '감사'의 정서

1. 노래를 듣고 표현적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2. 노래와 관련된 문맥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표현할 수 있다.

3.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고, 매일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할 수 있다.

[2] '감사'의 표현

1.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2.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3. '감사'의 표현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4. '감사'의 표현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3] 감사일기 쓰기

1. 감사일기 쓰기의 목적과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2. 2024년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의미 있는 감사일기를 써주세요.

3. 감사일기 쓰기의 목적과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4. 2024년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의미 있는 감사일기를 써주세요.

즐거운 여행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여행 TOP 10

만족스러웠던 여행지 /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 / 통계청 조사자료

안녕? 헬로! 나마스테.

[3]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1.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2.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3.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4.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5.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4] 여행지 소개하기

1. 여행지 소개하기

2. 여행지 소개하기

3. 여행지 소개하기

4. 여행지 소개하기

5. 여행지 소개하기

[수업_ 여행, 관찰]

즐거운 여행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여행 TOP 10

만족스러웠던 여행지 /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 / 통계청 조사자료

안녕? 헬로! 나마스테.

[3]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1.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2.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3.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4.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5.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4] 여행지 소개하기

1. 여행지 소개하기

2. 여행지 소개하기

3. 여행지 소개하기

4. 여행지 소개하기

5. 여행지 소개하기

즐거운 여행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여행 TOP 10

만족스러웠던 여행지 /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 / 통계청 조사자료

안녕? 헬로! 나마스테.

[3]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1.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2.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3.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4.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5. 여행을 보고, 설명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4] 여행지 소개하기

1. 여행지 소개하기

2. 여행지 소개하기

3. 여행지 소개하기

4. 여행지 소개하기

5. 여행지 소개하기

믿음반
활동사진
모음



[개강식]



[2024년 추석]



[김치의 날] 깍두기 만들기 활동



[2025년 을사년 설] 송편 빚기

민음반
활동사진
모음



[수업시간]



[삼일절]



[종강식 발표] 연극_강아지 똥

열매반



담임 교사 박은경



보조 교사 이현일



2025년 을사년 설날

열매반에는 열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겉모습, 성격, 취향, 배경은 각각 다르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라는 공동체로 모여 하나가 되는 일 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열매반에는 친남매도 있고, 친자매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매반에 온 동생들은 열매반 선배들에게 형, 언니, 누나, 오빠라고 부릅니다. 진짜 가족도 있고, 다솜에서 가족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우정과 추억을 쌓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을 축제처럼 즐기고, 좀 이른 김장철에는 깍두기를 담기도 하였습니다. 김장이라기엔 부족한 양이지만 정성껏 무를 썰고, 골고루 양념을 버무리며 흰 색에 고운 옷을 입히는 과정은 함께 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요리에 자신감이 붙은 걸까요? 겨울방학을 앞두고는 각자 집에서 요리한 음식으로 성탄 파티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의 레시피도 포스터로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김밥, 삼각김밥, 김치볶음밥, 파스타, 떡꼬치, 양념 치킨, 봉어빵, 달디단 초콜렛 등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을에는 만들고 싶은 책의 개요를 적어보기도 하고, 봄에는 내가 꿈꾸는 또는 가보고 싶은 박물관을 입체북으로 만들어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게는 제자들의 일관된 관심사를 파악하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박물관이나 배운 시를 소개하는 굿즈 가방을 만들어 다솜의 로고를 새겨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아주 다양하고 건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구, 배드민턴, 골프 같은 운동선수를 꿈꾸는 친구도 있고, 의사와 변호사, 정치인, 컴퓨터 엔지니어 등 크고 넓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항공우주 공학자나 해양 생물학자처럼 구체적이면서도 세상을 품는 멋진 꿈을 펼치는 제자들도 있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졸업한 네 명(지윤, 예준, 시운, 재웅) 학생들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발걸음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좋은 롤모델이 되어준 이현일 보조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면서도 힘겨운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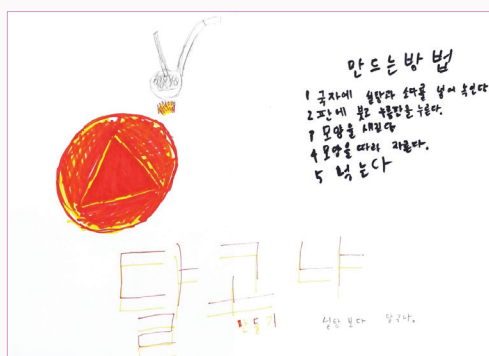
담임 교사 박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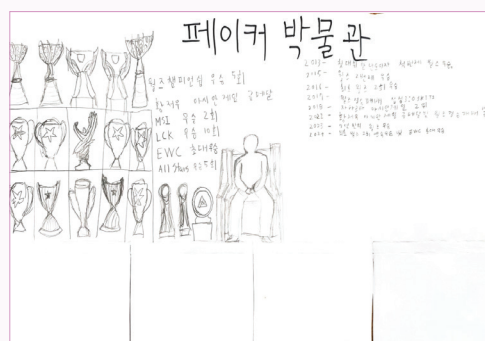
김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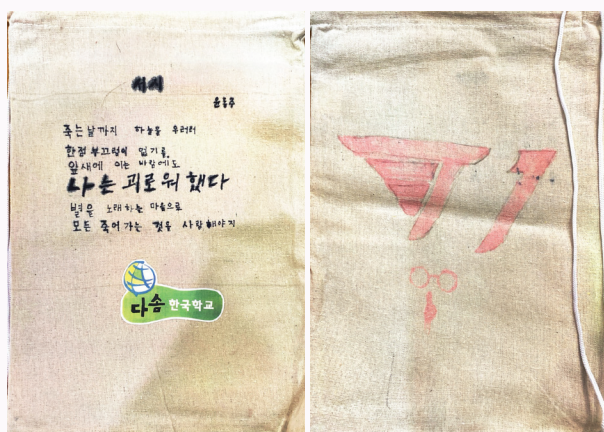
[내가 만든 책] 페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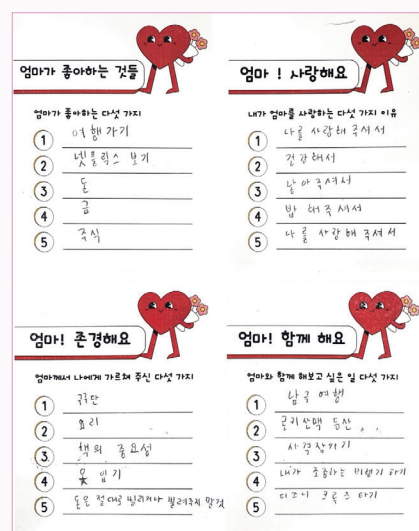
[전통놀이] 달고나



[페이커 박물관] 입체북



[페이커 박물관] 굿즈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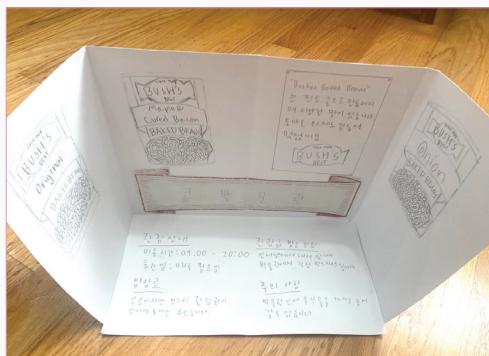


[어머니날 카드]

열매반



나예준



[콩 박물관] 입체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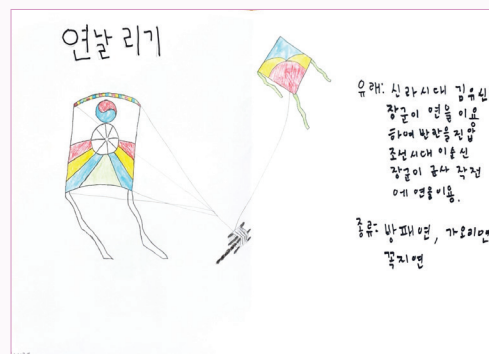


[콩 박물관] 굿즈 가방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좋아하는 다섯 가지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다섯 가지 이유
① 속국 길	① 할머니 쪽지 보내기
② 거피 에어오일	② 방배쪽지 보내기
③ 공포	③ 엄마와서
④ 가락	④ 사랑해 쪽지
⑤ 한국	⑤ 학교 보내 쪽지 보내기

엄마! 존경해요	엄마! 함께 해요
엄마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다섯 가지	엄마와 함께 해보고 싶은 일 다섯 가지
① 모은 새침에 손가락 짚어주기	① 한국가기
② 화나님을 사랑하기	② 공포 같이 놀기
③ 친구와 기쁘게 놀기	③ 같이 모래 놀기
④ 한국서	④ 한국 장어찌 볶음하기
⑤ 작하게 살기	⑤ 내가 온 편지하는 차 하기

[어머니날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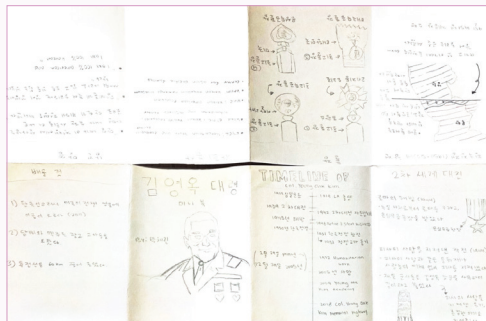
[전통놀이] 연날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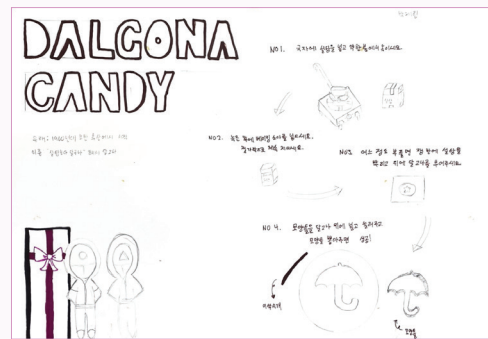
박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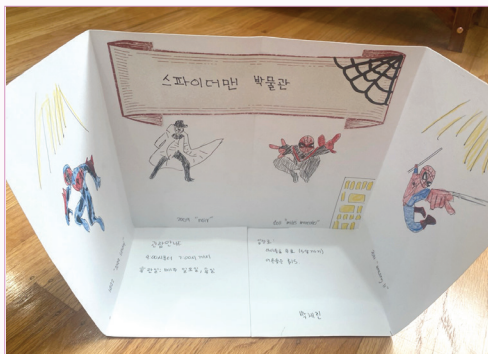
[김치 포스터]



[김영옥 대령 미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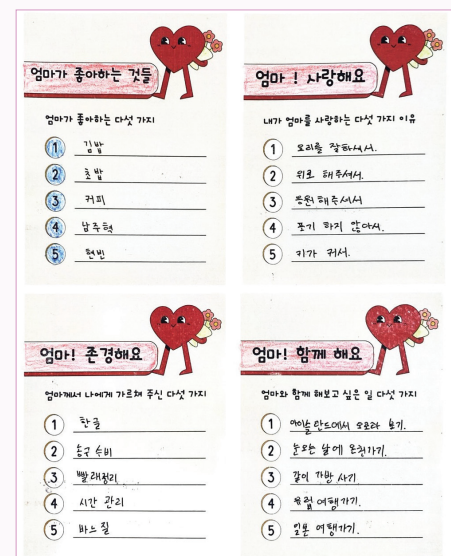
[전통놀이] 달고나



[스파이더맨 박물관] 입체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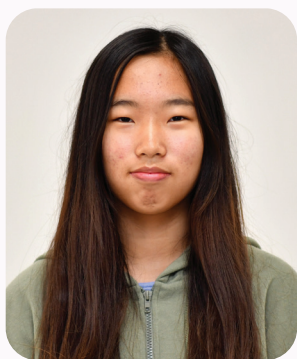


[스파이더맨 박물관] 굿즈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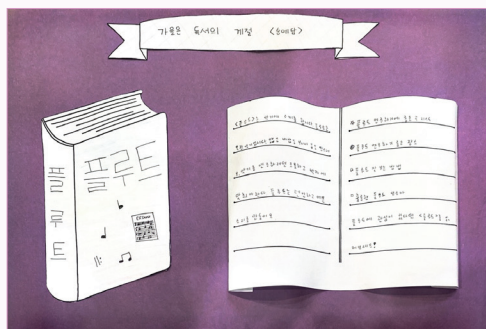


[어머니날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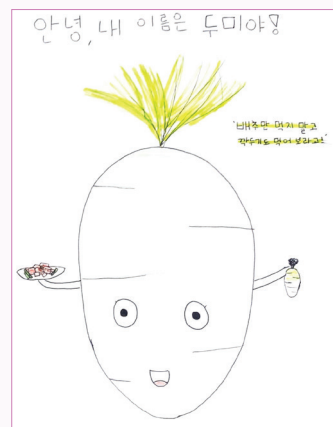
열매반



송예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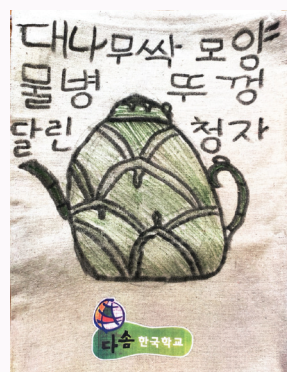
[내가 만든 책] 플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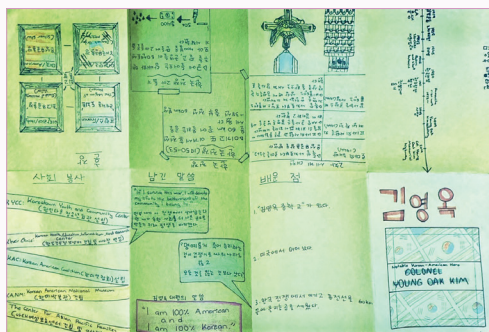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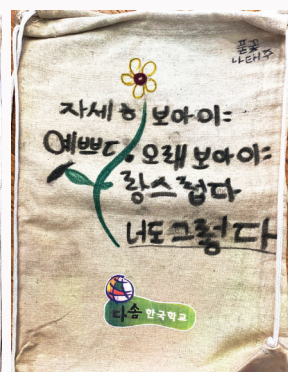
[깍두기 포스터]



[국립중앙박물관] 입체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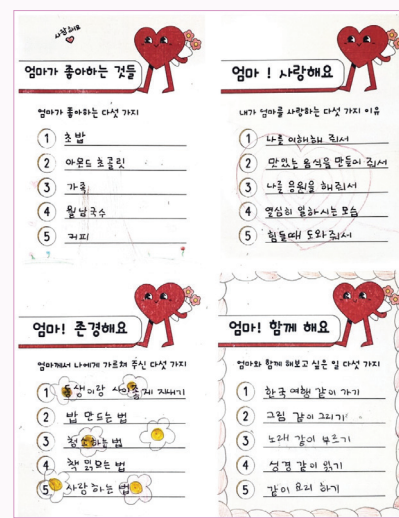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가방



[김영옥 대령 미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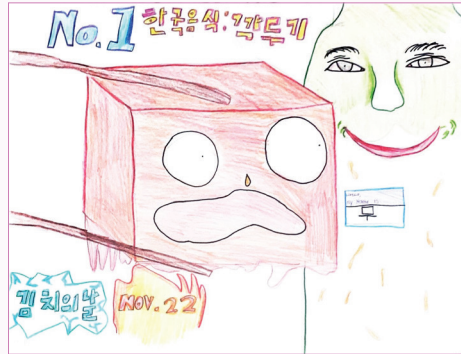
[전통놀이] 윷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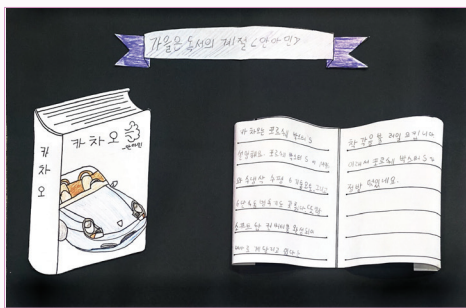
[어머니날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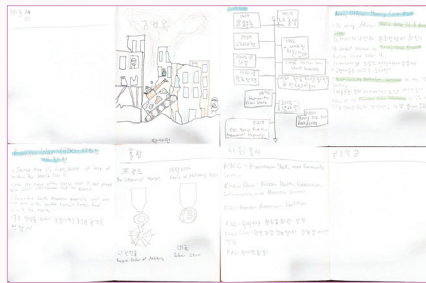
안 아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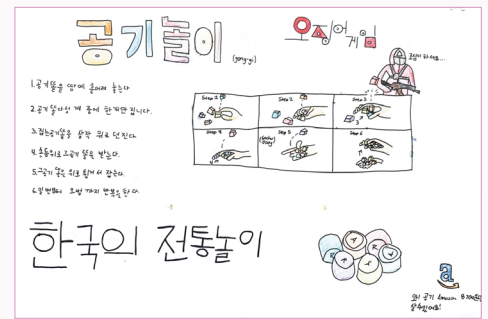
[깍두기 포스터]



[내가 만든 책] 카차오



[김영옥 대령 미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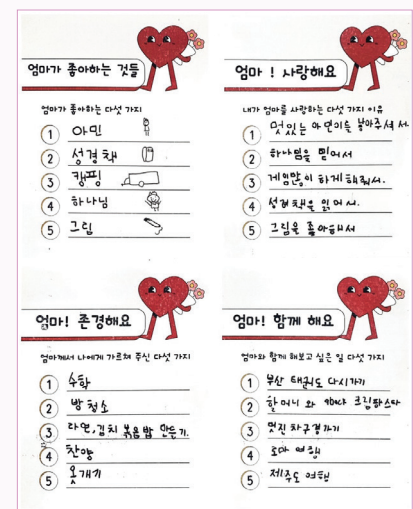
[전통놀이] 공기놀이



[자동차 박물관] 입체북



[자동차 박물관] 굿즈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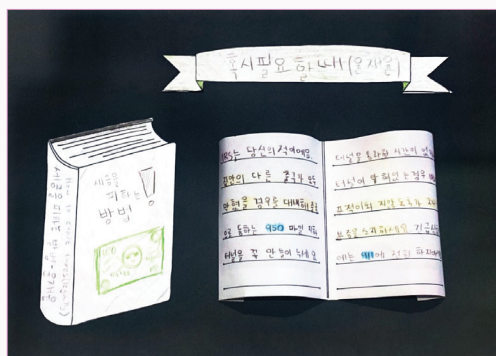


[어머니날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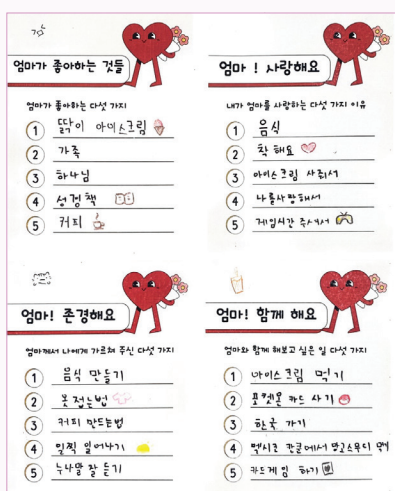
열매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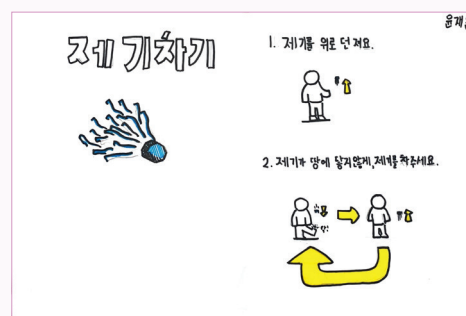
윤재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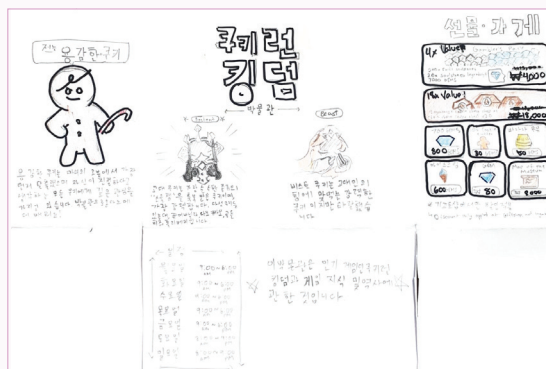
[내가 만든 책] 세금



[어머니날 카드]



[전통놀이] 제기차기



[쿠키런:킹덤 박물관] 입체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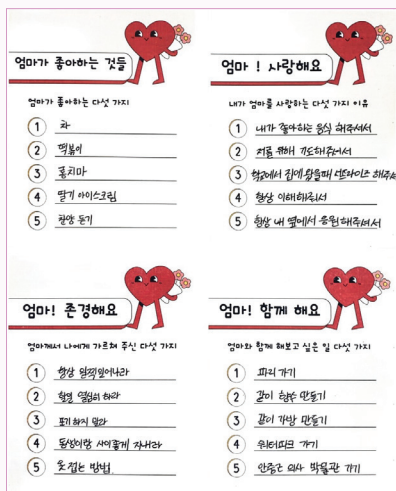
[쿠키런:킹덤 박물관] 굿즈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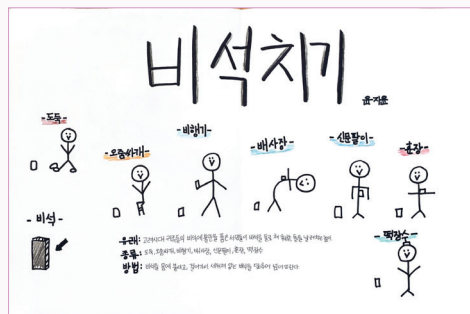
윤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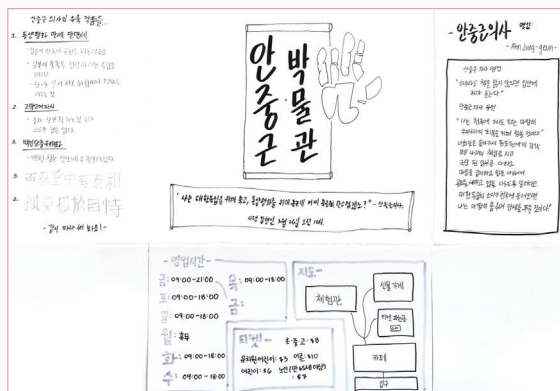
[바자회 포스터]



[어머니날 카드]



[전통놀이] 비석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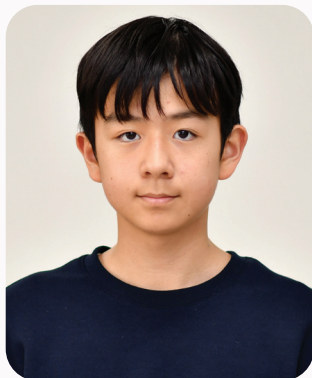


[안중근 박물관] 입체북



[안중근 박물관] 굿즈 가방

열매반



이 서 준



[바자회 포스터]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엄마가 좋아하는 다섯 가지

- ① 꽃
- ② 로얄
- ③ 장가기
- ④ 학교
- ⑤ 가족

엄마! 사랑해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다섯 가지 이유

- ① 멋있어서
- ② 캐티서
- ③ 나랑 자잘하게 주셔서
- ④ 허필름 일해서
- ⑤ 잘 카레도 주셔서

엄마! 존경해요

엄마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다섯 가지

- ① 나의 5년 말
- ② 책의 중요함
- ③ 일찍 일어나라
- ④ 돈 개념이다
- ⑤ 환경

엄마! 함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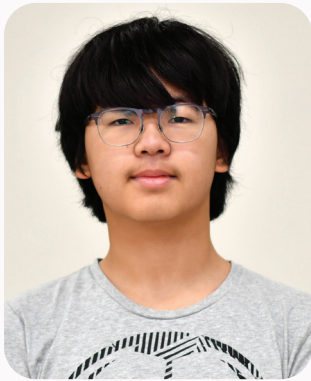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일 다섯 가지

- ① 일로 여행
- ② 직필로가 여행
- ③ 다닌다 주운 다거
- ④ 언더와서
- ⑤ 스캐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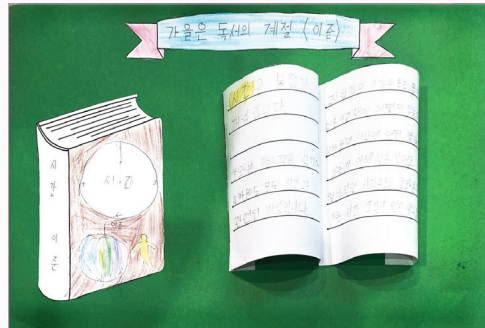
[어머니날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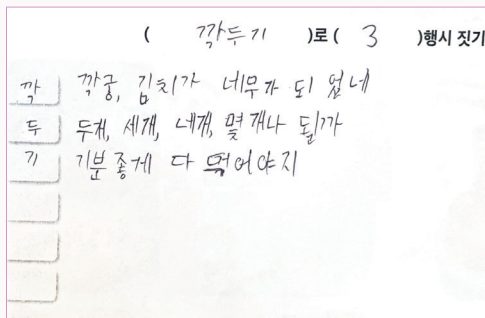
[로고 박물관] 굿즈 가방



이준



[내가 만든 책] 시간



[깍두기 삼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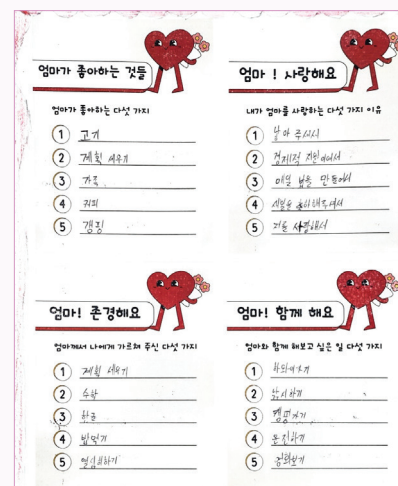
[깍두기 포스터]



[박물관] 굿즈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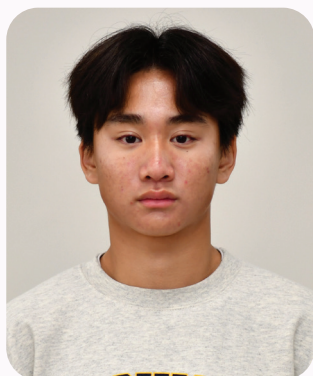


[바자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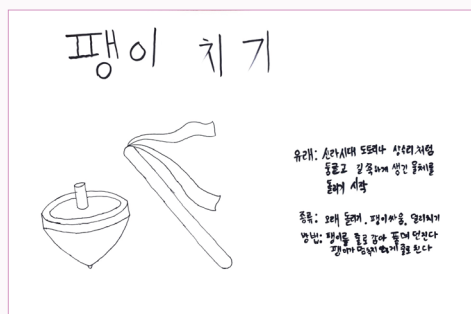


[어머니날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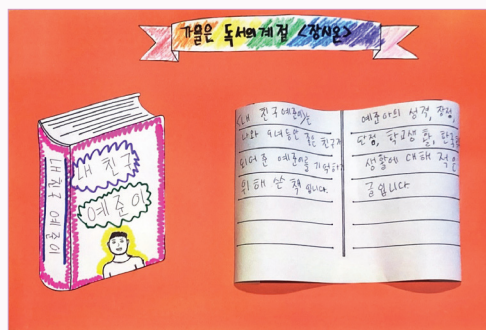
열매반



장 시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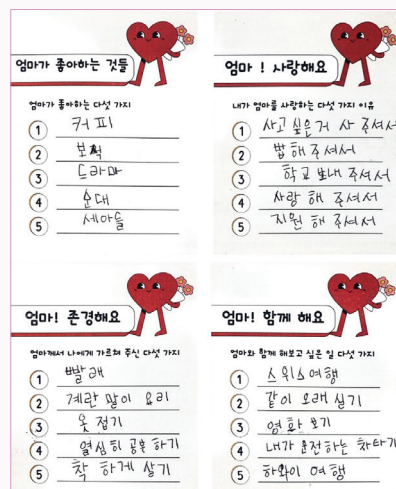
[전통놀이] 팽이치기



[내가 만든 책] 내 친구 예준이



[스팸 박물관] 굿즈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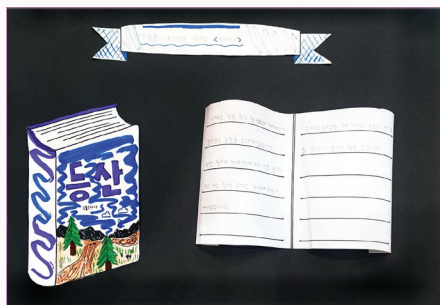
[어머니날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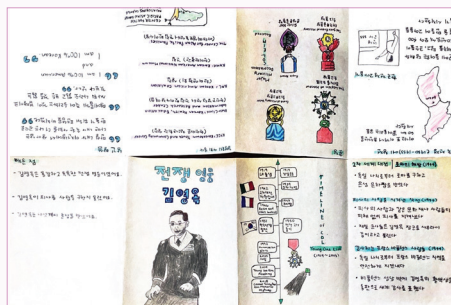
조 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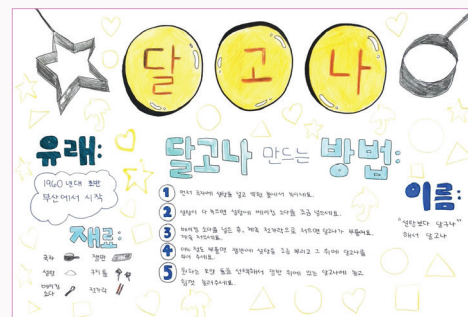
[각두기 포스터]



[내가 만든 책] 등산



[김영옥 대령 미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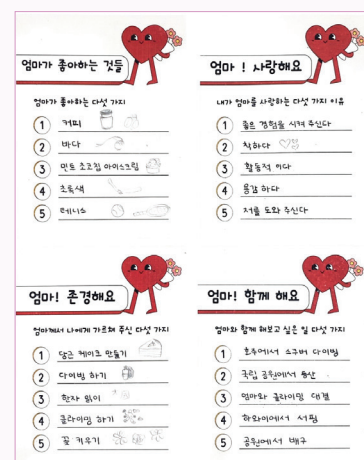
[전통놀이] 달고나



[감자 박물관] 입체북



[감자 박물관] 굿즈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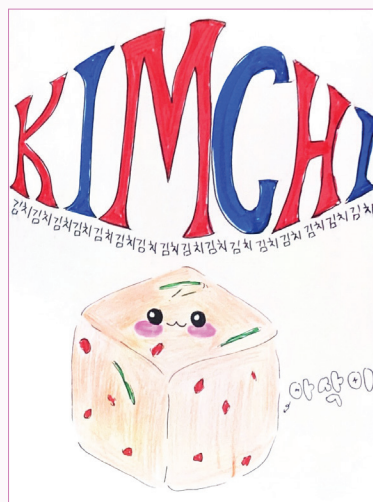


[어머니날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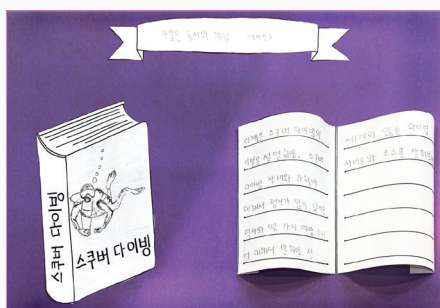
열매반



조새린



[각두기 포스터]



[내가 만든 책] 스쿠버 다이빙



[김영옥 대령 미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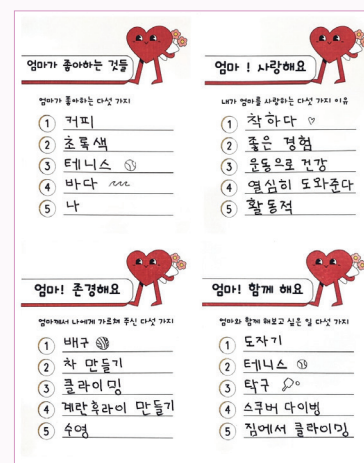
[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위키드 박물관] 입체북



[위키드 박물관] 굿즈 가방



[어머니날 카드]

열매반 활동사진 모음

2024년 가을학기



2025년 봄학기



특별 활동 반 을 소개 합니다!

2024년 9월 21일부터 12회에 걸쳐 3개의 반으로 나누어 특별활동을 하였습니다. 소고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사물놀이반과 바느질반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소고반과 사물놀이반은 교회의 바자회와,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개교기념식, 종강식 등에서 공연하였고 바느질반은 성탄절 장식과 Mother's day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활동반	담당 교사	학생들
소고반	김일현 선생님	기쁨반, 충성반
사물놀이반	김일현 선생님	화평반, 믿음반, 열매반
바느질반	장혜경 선생님	화평반, 믿음반, 열매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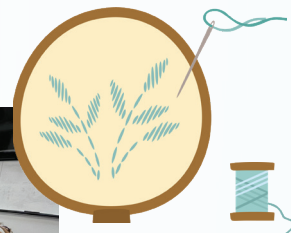
▶ 소고반



▶ 사물놀이반



▶ 바느질반



카네이션 수놓기



자랑스러운 졸업생이 되었어요!



졸업생 나예준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생 나예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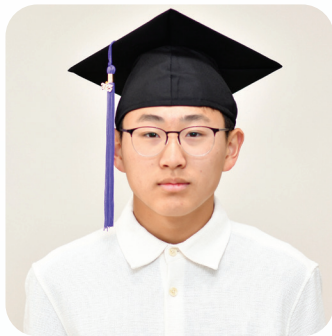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한국어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학교 가는 게 귀찮기도 했고, 한글 시험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학교에 대한 글을 쓸 때도 하기 싫은 마음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학교의 기억은 레고로 만든 독립문입니다. 독립운동가 서재필을 배울 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집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도 입고 한복 패션쇼도 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한국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입니다. 좋은 친구 시운이가 있어서 <내 친구 시운이>라는 책을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잘 배우세요.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장시운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생 장시운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는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학교에 왔을 때는 “몰라요, 못해요”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읽는 것도 어렵고 쓰는 것은 더욱 어려웠지만 실수해도 괜찮다며 친절하게 가르쳐준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꾸준히 한국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한국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우주 형이 있고, 또 지금 보조교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태양이 형도 있고, 올해 열매반 보조교사로 저를 많이 도와준 현일이 형이 있어서 저의 좋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해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설날에 세배하고, 김치 만들고, 아리랑을 불렀던 경험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한국학교 학생으로는 이제 졸업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보조교사 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김재용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생 김재용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2020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다솜한국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이미 익숙했지만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새롭고 더 깊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 박물관과 항공우주 박물관을 데려가 주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전쟁사에 관심이 많고, 항공우주분야에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국학교 행사는 한국전쟁 연극이었습니다. 1부에서는 다부동 전투에서의 지계 부대원 역할을 맡아 지계와 탄약 상자를 만들어 싸우는 연기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서 미해병사단을 지휘했던 스미스 소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19세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93세 노병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 퀴즈도 풀며 해병대원이 되고 싶다는 저에게 큰 응원을 해 주셨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저의 관심 분야 역사의 증인들을 만나는 아주 값진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김밥, 깍두기 만드는 경험도 즐겨웠습니다. 특활로는 사물놀이반에서 한국의 음악을 경험했고, 바느질반에서 어머니 날 선물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학생들이 대부분인 반이지만 저의 재능을 칭찬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솜의 학생으로서 배운 좋은 경험들을 잘 활용하여 후배들이나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잘 전하고 소개하는 보조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윤지윤

안녕하세요, 윤지윤입니다. 저는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9 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졸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다솜에 처음 온 날은 어렸을 때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졸업식을 하는 오늘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예쁘게 한복을 입었던 수많은 설날과 추석, 독도 티셔츠를 입고 외쳤던 대한독립만세! 그리고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매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했던 역사문화수업까지... 저는 9 년 동안 다솜에서 많이 배웠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누구도 망가트릴 수 없는 친구들과의 우정도 쌓았습니다. 언니, 동생들과 한국어로 함께 공부한 시간들은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솜한국학교를 제일 오랫동안 같이 다닌 친구 지유를 기억합니다. 2 년 전 텍사스로 이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순 없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도 같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많다는 것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저는 다솜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선생님들 얼굴이 생각납니다. 어린 지윤이의 감치 담그기를 도와주셨던 송향화 선생님,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웃어주시고 안아주신 원은경 선생님, 코비드 때문에 Zoom 으로 수업했지만, 웃기고 재밌게 해주셨던 권민혜 선생님, 그리고 저의 말하기와 캘리그라피를 서포트해 주신 박은경 선생님까지 저랑 다솜한국학교 길을 같이 걸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말하기 대회’입니다. 6 학년 때 박은경 선생님 권유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앞에서 저의 꿈을 말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힘들게 연습했지만 상은 못 받았고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 학년이 되었을 때, 박은경 선생님은 제게 “올해는 뭐해보고 싶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기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기뻐하셨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안중근 의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더 멋있고 의미 있는 스피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박은경 선생님께서 저의 캘리그라피를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연결한 멋진 스크립트 쓰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스피치 연습을 많이 했지만, 대회 날짜가 다가오자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대회에 나가야 하나? 구연동화 대회에 나가기엔 너무 컸는데?’ 제가 ‘상’에만 집중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조이 언니는 제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아도 돼!” 저는 언니의 말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상을 못 받아도 괜찮아. 스피치를 멋지게 하고 오면 돼!’ 저는 이 마음으로 안중근 의사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선생님께서 응원해 주신 이 특별한 경험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스피치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 스쿨에서는 ‘스피치&디베이트’ 수업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무언가 해보라고 권하시면, 꼭 해보세요! 상상도 못 해본 재미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다솜 친구들도 한국학교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발표회



자신감을 길러나간 경험의 시간들

글_권미정 (졸업생 윤지운 어머니)



저희 가정은 지운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운이가 미국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겠다며 기분 좋게 킨다가든 수업에 들어갔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자 당당했던 모습은 이내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운이는 영어에 익숙해지고 성장할 텐데 아이의 성장통을 바라보고 있자니 엄마인 제 마음에도 부모로서의 성장통이 애리듯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가족 모두 교회에 갔다가 다솜 수업에 들어가는 교회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운이는 바로 한국학교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아본 것이지요. 한국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로 마음껏 소통하고 나니 집에 와서 수다가 길어집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손들고 대답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한국학교에서 달래고, 친구에게 맞춤법을

가르쳐줘서 칭찬받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한글을 많이 안다는 기쁨과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운이는 토요일을 기다렸고, 항상 신이 나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솜한국학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운이가 조금 컸을 때 한국학교 가는 게 왜 좋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운이는 한국어가 편하고, 교회 친구들이 좋고, 선생님도 좋고, 교회인데 학교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 모든 게 좋았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는 아이가 한국학교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입니다. 영어를 못해서 소심함 뒤로 숨어야 했던 미국 학교 생활에서 지운이는 좌절감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한국 학교에서 보여준 모습은 배움의 열정과 의지였고, 자신감을 길러나가는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운이의 작은 장점을 이끌어주신 박은경 교감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중 발표할 때 떨지 않고 말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운이가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운이는 대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연습을 잘 이겨냈지만 아쉽게도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지운이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2년 후, 지운이가 말하기 대회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선생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인 저는 아이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행여나 더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운이는 8학년에 '안중근 말하기 대회'에 도전했고,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박은경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이 귀한 경험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이의 열정을 엄마의 생각과 의지로 막지 않도록, 아이가 성장의 시간을 오롯이 견뎌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운이는 9년이란 긴 시간을 한국학교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살게 될지 몰랐기에 한국학교 졸업은 생각도 못 했는데, 아이는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운이는 앞으로 살게 될 미국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고, 친구들과 함께 설날과 추석에 지내며 전통을 배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뿌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마음은 미국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분명 자신감을 가지고 코리안 어메리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윤이가 앞으로 보조교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윤이의 성장의 기간 동안 사랑으로, 그리고 참된 스승의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최미영 교장 선생님, 박은경 선생님, 원은경 선생님, 권민혜 선생님, 송향화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예준아!"

글_나희경 (졸업생 나예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해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하는 나예준 엄마 나희경입니다.

예준이가 처음 다솜에 다니게 된 것은 2016년 저희 가족이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로 오고 그 해 가을 7살 즈음이었습니다. 그 때는 영어보다 한국말이 서툰 나이였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다솜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7살 많은 누나들이 한글학교를 다니다가 말았기 때문에 예준이는 더 열심히 보내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숙제도 많아지고 학교에서 영어를 많이 하면서 한국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 하게 되고 운동으로 빠지는 날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가르침으로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솜에서 가르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예준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준이가 알지 못했고 제가 가르쳐 줄 수 없었던 한국 문화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계절에 맞춰 김치와 송편을 만들었던 것은 예준이에게 즐거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누나들과 달리 역사와 문화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다솜에서 가르쳐 주셔서 누나들보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특히 재미 한국인의 역사는 저도 알지 못했던 것들로 예준이와 함께 숙제를 하며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미 한인으로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배우게 되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되고 9년 동안 다솜을 다니며 예준이를 맡아주신 송향화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 원은경 선생님, 조은미 선생님, 박은경 선생님과 최미영 교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졸업이 실감나질 않지만 보조교사로 봉사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더 배워가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한국학교에 가기 싫어 입을 내밀었지만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따라와 줘서 고맙고 아직은 한국어와 여러 다양한 한국 문화와 역사가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겠지만 재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될 날을 기약하며 예준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고했어, 예준아!”



다솜의 자랑 보조교사들의 이야기

Q.

1. 성명
2. 지난 1년간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3. 보조교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나 특별한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보조교사로서 맡았던 역할이나 주된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5.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본인이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6.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7. 앞으로 보조교사가 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격려의 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8. 보조교사 활동을 한 전체적인 소감이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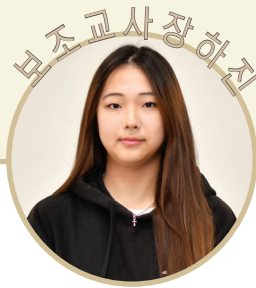
A.

1. 오태양
2.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관심을 주었을 때
3. 운동회와 추석 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4. 수업 정리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주기
5. 어린 반 보조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조금 알게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6. 아이들이 수업에 떠들거나 말을 조금 안들을 때에는 조금 기다려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 같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보조교사를 한다면 즐겁고 재미있게 학생들과 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8. 1년 동안 부족했지만 늘 칭찬해 주시는 안지은 담임 선생님께 감사하고, 다솜한국학교를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모든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

1. 박준우
2. 충성반에서 읽는 것과 쓰는 것 모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만 가르쳐주니까 나중에는 혼자서 단어를 몇 개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3. 충성반 분식집을 열어서 반 애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다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음식이 넉넉해서 다른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 숙제 검사를 하면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 받아쓰기 채점하는 것, 읽기나 쓰기 등 힘들어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것, 학생들 쉬는 시간에 지켜보는 것과 수업 후에 정리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5. 정희조 선생님의 수고를 보면서 교사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 선생님들께 더 예의를 갖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애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힘들었습니다. 교실에서 뛰어다니고, 선생님이 잠깐 나가셨을 때는 더 까불고 장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직 어렵습니다.
7.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8. 매주 토요일 아침 더 자고 싶은 것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 또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반 애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보조교사의 일들이 익숙해졌습니다. 다음 학기에서는 조금 더 스윗한 보조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보조교사로 보낸 두 해의 소중한 시간

보조교사 장하진

보조교사로 2년 동안 봉사한 장하진입니다. 첫 해에는 충성반의 어린 학생들을 돌보며 정희조 선생님의 다양한 보조활동을 경험하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으로는 중학생들이 있는 믿음반을 맡게 되어 조은미 선생님과 조은아 선생님께서부터 함께 배우며 활발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충성반 학생들은 보조교사를 처음부터 친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충성반과는 조금 다르게 믿음반 학생들은 처음에 조금 어색하고 거리가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 덕분에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조은아 선생님께서는 고급스러운 사자성어, 최신의 한국 상황에 대한 지식,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들을 가르쳐 주셔서 저에게도 새롭고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믿음반의 종강식 발표 연극인 ‘강아지똥’은 저도 충성반에 있을 때 원종은 선생님이 지도해 주셔서 발표를 했었던 연극입니다. 제가 흙 연기를 맡아 흙색 담요를 뒤집어쓰고 연기를 했던 추억이 생각이 나며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발표를 위해 천을 사서 구멍을 내어 만든 그 담요는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11학년으로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어서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시간이나 일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의 이해로 즐겁게 마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바쁜 고등학교 시절에 작은 봉사라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소통을 돕고, 어른 세대와 어린이 세대 사이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보조교사입니다. 이러한 보조교사 활동은 저에게도 리더십과 도우미 훈련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미래 공부와 직업도 봉사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봉사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술, 한국인의 정체성을 본받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자 보조교사 두 명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항상 친절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전이현 선배와 장선진 선배입니다.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새로 보조교사가 되는 후배들도 동생들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관찰로 시작된 나의 첫 보조교사 경험

보조교사 안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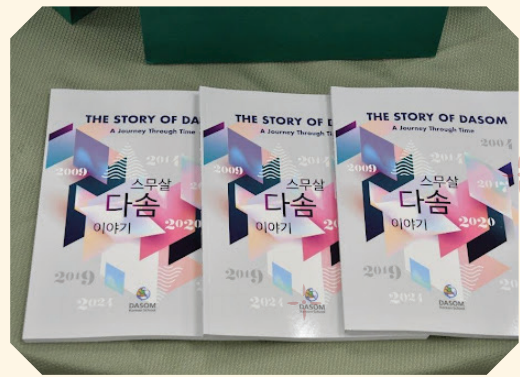
저는 올해 처음으로 다솜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을 때, 보조 선생님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말투, 행동, 그리고 태도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며 '나는 어떤 보조교사가 되면 좋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장점과 단점을 기억하며 '완벽한' 보조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VBS) 그룹 리더를 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교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과자를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학교 생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워크북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성격과 취향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아이들은 훨씬 예의 바르고 차분했고, 각자 자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반짝이는 눈빛이 참 인상 깊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보조교사들을 생각하며, 관찰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어려웠던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보조교사들에게도 역할과 기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처럼 처음 보조교사가 되는 친구들이 서로 소통하며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 선생님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교회 집사님이자 친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프린터 사용법 같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들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그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활동 중 만들기 반이 생긴다면, 그곳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바느질 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저의 경험처럼, 만들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첫 보조교사 경험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관찰을 통해 배운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의 주변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관찰하며, 더 좋은 보조교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식 · 김치



우리 학교에서는 2024~2025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Culture로 정하고 그 수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9일, 깍두기 담그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도마와 앞치마를 챙겨 들뜬 마음으로 등교했고, 기쁨반, 충성반, 열매반 부모님들께서 친교실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전 수업은 권미정 선생님의 김치에 관한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에 대해 배우고, 김치의 종류와 재료도 익혔습니다. 이어 김미희 강사님의 시범을 보고 학생들은 무 썰기부터 무 절이기, 양념 버무리기까지 직접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김치 담그기였지만, 학생들은 진지하게 참여했고 자신이 만든 깍두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체험을 마친 후에는 학습지를 통해 김치의 역사와 발효 음식에 대해 더 깊이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K-Culture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김치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일상에서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학 · 시



우리 학교에서는 2024~2025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Culture로 정하고, 한식, 한국문학, 한국 음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두 번째 수업으로 '한국문학·시' 강의를 열었고, 박은경 교감 선생님께서 시와 시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나태주의 〈풀꽃〉, 윤동주의 〈서시〉, 정몽주의 〈단심가〉를 함께 읽고 감상했으며, 학생들은 시를 낭송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의미를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영화 〈동주〉도 함께 감상하며 시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스피닝 휠 어휘 게임, 시조 풍선 게임, 시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3주 동안 교실에서 시 암송과 창작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K-Culture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 시와 시조에 친숙해지고,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직접 느끼고 표현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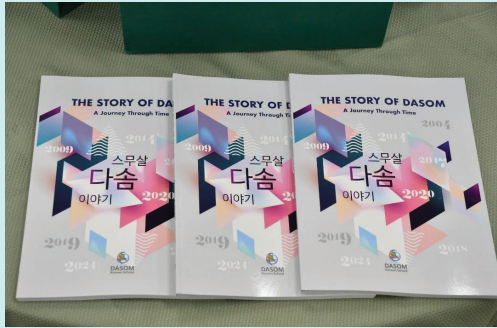
한국 음악 · 아리랑



우리 학교에서는 2024~2025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Culture로 정하고, 한식, 한국문학, 한국음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는 세 번째 수업으로 '아리랑 민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수업이 열렸고, 정희조 선생님께서 수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민요임을 배우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해진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을 감상하고, 시대별 아리랑의 변화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북캘리포니아의 기후와 정서를 담은 '북캘리포니아 아리랑'을 상상해 보고, 아리랑이 민족의 정서를 담은 노래임을 이해하며 자신만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개사 아리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업의 마지막에는 장구, 소고, 리듬악기 등을 활용해 개사한 아리랑을 직접 연주하고 촬영한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음악을 통한 연대와 응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K-Culture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아리랑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고, 한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개교 20주년 백서 출판 기념식 2024년 8월 24일



개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백서 <스무 살 다숨 이야기 (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을 출판하고 지난 8월 24일 출판기념식이 있었다. 백서 (ISBN: 9780999715383)는 총 180쪽으로 구성되었는데, 학교 소개를 통한 20년의 역사와 오늘날 학교의 모습, 그리고 전현직 교사들과 학부모, 본교와 인연이 있는 분들의 글을 통한 다솜한국학교 소개, 20년의 연혁 및 보도자료 모음, 학생과 교사 앨범 등 20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2024~2025학년도 교사 연수회 및 보조교사 연수회 2024년 8월 24일



2024~2025학년도 개강을 앞두고 세 차례의 교사 연수회 및 보조교사 연수회를 진행했다. 8월 24일 오후 2시에 다솜 백서<스무 살 다숨 이야기> 출판 기념식을 마치고 바로 보조교사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교 보조교사는 다솜을 졸업했거나 본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지원한 10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보조교사 연수회와 선서를 거쳐야만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2024~2025학년도 개강식 2024년 9월 7일



2024~2025학년도 개강식이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40분 동안 학생, 교사 및 학부모님 등 90명이 모인 가운데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추석 행사 2024년 9월 14일



2024년 9월 14일 추석 행사를 개최했다. 토요일 아침 한복을 곱게 입은 학생들이 모여 들었고 학부모님들은 '다솜 한복집' 운영 팀, 송편 만들기 팀과 정리 팀 등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올해 추석 행사는 추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시작으로, 송편 빚기 체험, 재미있는 추석 어휘 찾기 게임, 그리고 전통 씨름 대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독도의 날 행사 2024년 10월 19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4주년과 2024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관한 계기 수업을 진행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렸다. 조은미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역사문화 조화 | 김치의 날 깍두기 담그기 2024년 11월 9일



2024년 11월 9일, 학생들은 책방방 외에 도마와 앞치마를 들고 약간의 흥분된 모습으로 등교하였다. 깍두기를 담그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기쁨반, 충성반, 열매반 부모님들은 일찍 오셔서 친교실에 테이블 보를 깔고 학생들이 사용할 장갑과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준비해 주셨다. 권미정 선생님께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임을 알려 주시고 김치 사진을 보여주며 김치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다. 학생들은 김치 재료 이름을 하나씩 배우고, 자신들이 만들 깍두기를 구경했다. 깍두기 담그기 시범은 김미희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다.

6.25참전용사와의 대화 2024년 11월 23일



2024년 11월 23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개최한 <6.25참전용사와의 대화> 행사가 있었다. 다솜에서는 화평반, 믿음반, 열매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보조교사 사은회 2024년 12월 14일



2024년 12월 14일 하교 후에 보조교사 사은회가 있었다. 보조교사는 다솜의 보배라고 늘 칭찬해주시는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선물 증정식이 있었다. 선생님들은 우리 보조교사가 제일 멋지고 미남이라고 말씀하시며 보조교사들이 교실에서의 여러 도움에 관해 칭찬해 주셨다.

원은경 교감선생님 퇴임식 2024년 12월 14일



2024년 12월 14일에 원은경 교감 선생님 퇴임식이 있었다. 원은경 교감 선생님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교사, 교무, 교감으로 헌신 봉사해 주셨다. 비록 교감직에서 퇴임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다솜에서 봉사해 주시기로 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Proud Republic of Korea, ISBN 978-0-9997153-9-0) 출판 기념식 2024년 12월 14일



2024년 12월 14일, 다솜한국학교의 11번째 역사 문화 교재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Proud Republic of Korea, ISBN 978-0-9997153-9-0)」의 출판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1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국경일을 중심으로 배우는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전쟁,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통일 등의 내용을 모두 모아 이번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다. 또한 이 교재에는 한글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논의한 소논문 「미국, 네덜란드, 호주 사회와 교과서 속 대한민국과 한인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알리기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관련 내용을 네덜란드와 호주의 사회와 교과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더 나아가,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2025년 설 행사 2025년 1월 25일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5일 다솜 설 행사 및 민속놀이 축제를 함께 즐겼다. 예쁜 한복을 입고 중앙홀에 모여 십간과 십이지 동물 및 세배 하는 법을 배우고 을사년에 어울리는 재미있는 덕담을 나누었다. 이어서 다섯 가지 설날 활동 부스를 차례차례 돌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역사문화 조희 II 한국문학 -시 2025년 2월 16일



2025년 2월 16일, 2024-2025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인 K-컬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문학-시’ 수업이 열렸으며, 박은경 교감 선생님이 시와 시조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정규학교에서 영문시는 배우지만, 한국 시와 시조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와 시조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낭독하고 창작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경 교감선생님은 풀꽃시인 나태주 시인의 <풀꽃>, 민족 시인 윤동주의 <서시>, 그리고 고려 충신 정몽주의 시조 <단심가>를 소개했다.

삼일운동 106주년 기념식 및 태극기 행진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삼일운동 106주년을 기념하여 삼일절 행사와 태극기 행진을 진행했다. 안지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경일로 배우는 대한민국 역사” 수업에서 배운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K-문학 시간에 접했던 민족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낭독했다. 그리고 “삼일절을 기억합시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 후 커다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노래를 부르며 학교 주변을 행진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가슴에 새겨 보았다.

개교 21주년 시화 그리기 및 기념 운동회 2025년 3월 15일



2025년 개교 21주년을 맞이하여 시화 그리기 대회와 기념 운동회를 교내에서 개최했다. 학생들은 지난 달에 배운 한국 시와 시조를 떠올리며 학교 밖으로 나가 꽃을 찾아보고, 꽃을 관찰하며 시를 쓰거나 시화 작품을 완성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운동회를 손꼽아 기다리던 학생들은 만국기 아래에서 정희조 선생님의 사회로 국민체조를 하며 시작되었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밴다나를 두르고 응원전을 펼쳤고 이인삼각, 콩주머니 던지기, 쟁반으로 풍선 옮기기, 큰 줄넘기, 장애물 달리기, 짐볼 옮기기 등이 진행되었다. 운동회 청백전은 청팀의 승리로 끝났고, 모두 함께 축하 케이크와 간식을 나누며 즐거운 개교기념일을 보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Korean Test 한국어 능숙도 평가(NKT) 2025년 3월 22일



2025년 3월 22일에는 믿음반과 열매반에서 NAKS Korean Test 한국어 능숙도 평가(NKT)를 실시하였다. NKT는 미국 전역 44개 한국학교에서 총 739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실시되었고, 미국 내 한국학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표준화된 언어 능숙도 검사이다. 단순한 언어 지식의 측정을 넘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전 영역에서 실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험 결과는 학년말에 성적표와 함께 배포된다.

역사문화 조화 III 아리랑 챌린지 2025년 4월 5일



2024-2025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체인 K-컬처의 세 번째 수업으로 '아리랑 민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으며, 정희조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었다. 학생들은 '아리랑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내 다른 한국학교 학생들에게도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아리랑 챌린지'를 기획했다.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팀이 보조교사의 지도 아래 장구, 소고, 리듬악기 등을 활용해 개사한 아리랑을 연주하며 쇼츠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북가주 나의꿈말하기 대회 2025년 4월 19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북가주지회(NAKS-NCAL)에서 개최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믿음반 김이룬 군이 다솜의 대표로 참가하여 '희망의 빛'상을 수상하였다. AI시대에 더 많은 앱과 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행복함을 가져다주는 UI designer가 되고 싶다는 꿈을 잘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2024~2025학년도 종업식 2025년 5월 17일



2024~2025학년도를 마무리하며 종강식과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사물놀이팀의 힘찬 북소리로 문을 연 종강식은 권미정 교무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 박석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학사보고, 교장 인사말, 상장 수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보고 편 참조)

2024~2025학년도 졸업식 2025년 5월 17일



박은경 교무 선생님의 사회로 이어진 졸업식에서는 윤지윤, 나예준, 장시은, 김재용 학생이 졸업하였고 3년 동안 보조교사로 수고한 이현일 보조교사가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들이 다솜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다솜과 함께한 날들을 추억했다. 4명의 졸업생은 다솜에서 배우고 알게 된 것과 앞으로 보조교사로서 날을 기대하는 글을 발표했다. 졸업식은 선생님들의 축하 메시지와 박석현 목사님의 축도로 마쳤다.

1. 개교 20주년 백서 출판 기념식: 2024년 8월 22일 Hyundai News USA

10 August 22, 2024 - August 28, 2024

칼럼

HYUNDAE NEWS USA

"지난 20년의 학교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다ս한국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역사 기록물 백서 출판



사내배임시에 위치한 다ս한국 학교에서는 개교 20주년을 기념하여 20년 역사를 기록한 백서(스무살 다숨 이야기(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를 출판하고 지난 8월 24일 출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백서(ISBN: 9780999715383)는 총 180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전현직 교사들과 학부모, 학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글을 통한 다숨 소개, 연혁 및 보도자료 모음, 학생, 교사 앨범 등 2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앨범 등 2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회계장 교장은 다ս한국학교에 는 개교 때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교사의 인사말과 결속보고가 있었고 재외동포청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및 한국교육원의 축사를 대독하였다. 전임 다ս한국학교 이사장은



간이었고 그 중요한 기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내배임시에 위치한 산호세 한인교회와 김창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출판 기념식에는 최미영 교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가 있었고, 재외동포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등이 보내 온 축사를 대독했다.

20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바탕으로 기록했기에 20년 백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백서를 함께 만들면서 다숨의 성실함, 다숨의 자량,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출판기념식에

참석한 보조교사들도 백서에 실린 자신의 글을 발표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한국학교의 역사는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적어도 1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한국(가)학교의 모습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여러 한국학교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함께 공유하며 전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2. 개교 20주년 백서 출판 기념식: 2024년 8월 25일 Korea Daily Times

다ս한국학교, 20년 역사 담은 기록물 출간

by KDT posted Aug 25, 2024

다ս한국학교는 개교 20주년 기념에 지난 20년의 역사를 기록한 백서 '스무살 다숨 이야기(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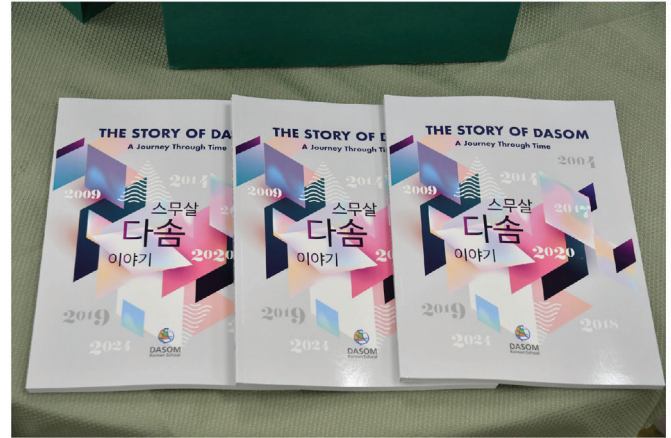
이와 관련 24일 기념식이 북부 캘리포니아에 서니베일에 위치한 산호세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북부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ս한국학교가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20년 학교의 역사를 담은 백서 '스무살 다숨 이야기'를 출간한 가운데 23일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숨 측에 따르면 백서(ISBN: 9780999715383)는 총 180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전현직 교사들과 학부모, 학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글을 통한 다숨 소개, 연혁 및 보도자료 모음, 학생, 교사 앨범 등 2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다ս한국학교, 20년 역사 담은 기록물 출간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다숨의 20년 역사가 담긴 백서 '스무살 다숨 이야기'>

산호세한인장로교회 김창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출판 기념식에는 최미영 교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가 있었고, 재외동포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등이 보내 온 축사를 대독했다.

전남진 다ս한국학교 이사장은 "20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바로바로 기록했기에 20년 백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격려사를 전했다.



<전남진 다ս한국학교 이사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교사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백서를 함께 만들면서 다숨의 성실함, 다숨의 자량,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is.com/index.php?mid=social&document_srl=79150&listStyle=viewer

3. 개교 20주년 백서 출판 기념식: 2024년 8월 29일 한국일보



다ս한국학교는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스무살 다숨 이야기' 책을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사진 다숨 한국학교>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은 개교 20주년을 기념하여 20년 역사를 기록한 백서 '스무 살 다ս 이야기 (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 출판기념회를 지난 24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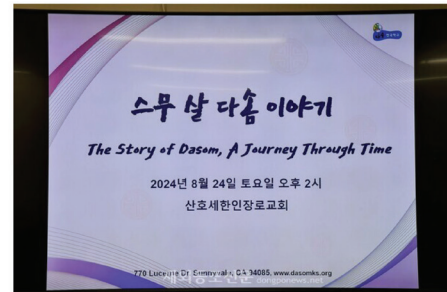
이 책은 총 180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소개를 통한 20년의 역사와 오늘날 학교의 모습, 그리고 전현직 교사들과 학부모, 본교와 인연이 있는 분들의 글을 통한 다ս한국학교 소개, 20년의 연혁 및 보도자료 모음, 학생과 교사 앨범 등 2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서니베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 김창영 목사님의 지도로 시작된 출판 기념식에서 최미영 교장의 인사 및 경과보고가 있었고 재외동포청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및 한국교육원의 축하사를 대독하였다. 전남진 다ս한국학교 이사장은 20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바로바로 기록했기에 20년 백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교사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백서를 함께 만들면서 다ս의 성실함, 다ս의 자량,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하였다고 했다. 출판기념식에 참석한 보조교사들도 백서에 실린 자신의 글을 발표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최미영 교장은 "다ս한국학교에는 개교 때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는 교사가 여러 명 계시고, 많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왔기에 백서를 출판할 수 있었다"라면서 "다ս한국학교가 지나온 지난 20년은 한국학교의 역사상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기간이었고 그 중요한 기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산호세한인장로교회 김창영 목사님의 지도로 시작됐다. 이어 최미영 교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가 있었고, 최 교장은 재외동포청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및 한국교육원의 축하사도 대독했다.



다ս한국학교 20주년 백서 '스무 살 다ս 이야기(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 [다ս한국학교]

전남진 다ս한국학교 이사장은 "20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바로바로 기록했기에 20년 백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4. 개교 20주년 백서 출판 기념식: 2024년 8월 29일 Dongpo

재외동포신문
HOME > 한인광장 > 북미

美 캘리포니아 다ս한국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백서 펴내

A 조민학 기자 | 2024.08.30 0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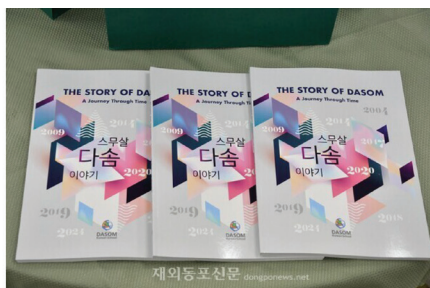
‘스무살 다ս 이야기’, 그동안 학교 역사 총망라해 담아
8월 24일 출판기념식 가져
최미영 교장 “20년 역사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기뻐”



8월 24일 산호세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소재 다ս한국학교 20주년 백서 '스무 살 다ս 이야기(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 출판기념식 [다ս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시(市)에 있는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백서(白書) '스무 살 다ս 이야기(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를 출간하고, 8월 24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스무살 다ս 이야기'는 18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학교 20년 역사와 오늘날 학교 모습 그리고 전·현직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인연을 맺은 이들의 글을 통한 학교 소개, 20년 연혁과 보도자료 모음, 학생과 교사 앨범 등으로 꾸며졌다.



다ս한국학교 20주년 백서 '스무 살 다ս 이야기(The Story of Dasom; A Journey Through Time)' [다ս한국학교]

5. 추석 행사: 2024년 9월 12일 Hyundai News USA

4 September 12, 2024 - September 18, 2024

종 합

HYUNDAI NEWS USA

손끝이 아무저 움골은 승편을 찾아내며 다ս한국학교, 풍성한 추석 행사 개최

다ս한국학교는 지난 9월 15일, 서을 앞두고 따뜻한 추석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손끝이 움골은 승편을 찾아내며 풍요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인 김중도 이사장은 학생들의 손을 케어하고 주위에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노력하여 일일이 세심한 관리, 무를 세심한 관리를 받았다. 졸업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는 승편 찾기는 한국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이번 추석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미국 속 한국학교의 역할은 한국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재민족애를 나누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6. 추석 행사: 2024년 9월 17일 Korean Daily Times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14일 추석 행사를 통해 차세대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날 학생들은 한복을 곁게 차려입고 추석 행사에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다ս 한복집'을 운영하고, 승편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14일 다솜한국학교에서 추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전남진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권미정 교사의 지도로 송편 빚기에 열중했다.

송편이 익어가는 동안 학생들은 박은경 교감의 '추석 어휘를 찾아라' 놀이를 하며 추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박은경 교감의 지도 아래 '추석 어휘를 찾아라' 놀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단원 김홍도의 씨름 그림을 보며 선조들이 즐겼던 씨름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학생들은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청백팀으로 나뉘어 엉덩이 씨름, 팔씨름, 무릎 씨름을 벌였다.



<학생들이 한국 고유의 놀이인 '씨름'을 하고 있다.>

최미영 교장은 "졸업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는 송편 빚기는 한국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라며 "이번 추석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문화를 배우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장은 "미국 속 한국학교의 역할은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문화를 전달하고 재창조하며 나누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송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은안 기자>

7. 추석 행사: 2024년 9월 20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KOREATIMES.COM

San Francisco - 한인사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연예 한국홈쇼핑 한국TV

사회일반

다솜한국학교, 풍성한 추석 행사

2024-09-20 (금)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14일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추석 행사를 개최했다. 한복을 급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학부모들은 '다솜 한복집' 운영, 송편 만들기, 정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주말에 모여 권미정 교사의 지도 아래 송편 빚기에 열중했다. 또 학생들은 박은경 교감 선생님의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추석 어휘를 찾아라' 놀이를 하며 추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백팀으로 나뉘어 엉덩이 씨름, 팔씨름, 무릎 씨름 한판을 벌였다. <사진 다솜 한국학교>

8. 독도 수업: 2024년 10월 Korea Daily Times

"독도는 한국땅" 다솜한국학교 '독도의 날' 기념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26일 다솜한국학교 조은미 교사가 '독도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뿌리 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교사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알고 있는 가상의 일본계 친구인 아키코를 설득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특히, 아키코에게 독도의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이유를 들어 설명했으며, 학생들과 함께 독도 관련 퀴즈를 풀었다.

“독도는 한국땅” 다ս한국학교 ‘독도의 날’ 기념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초등반 학생들이 소고춤을 추고 있다.>

최미영 교장은 “우리 학교는 독도의 날 행사를 14년째 계기 수업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다
숨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은안 기자>

9. 독도 수업: 2024년 10월 24일 Hyundae News USA

10 October 24, 2024 - October 30, 2024 종합 HYUNDAE NEWS USA



다ս한국학교 2024년 ‘독도의 날’ 행사

다ս한국학교에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4주년과 2024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관한 계기 수업을 진행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렸다. 조은미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조은미 선생님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알고 있는 가상의 일본계 친구인 아키코를 설득하기 위해, 독도에 대해 공부하고 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일

본계 친구인 아키코에게 독도가 왜 대한민국 영토인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과 함께 독도 관련 퀴즈를 풀었고, 각 반에서는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다. 다ս한국학교는 독도의 날 행사를 14년째 수업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다ս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크다. 어린 반 학생들은 독도 모형을 만들어 보았고, 초등반 학생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소고춤을 추면서 독도를 홍보했다.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 학생들은 각 학년에 맞는 학습지를 통해 심화 학습을 했다.

10. 독도 수업: 2024년 11월 1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KOREATIMES.COM

San Francisco - 한인사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연예 한국홈쇼핑 한국TV

사회일반

다ս한국학교 2024년 독도의 날 행사

◆ 댓글 ◆ 2024-11-01 (금)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4주년과 2024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관한 계기 수업을 진행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렸다. 다ս 한국학교는 독도의 날 행사를 14년째 계기 수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어린 반 학생들은 독도 모형을 만들어 보았고, 초등반 학생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소고춤을 추면서 독도를 홍보했다.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 학생들은 각 학년에 맞는 학습지를 통해 심화 학습을 했다. 초등반 학생들이 소고춤을 추고 있다.<사진 다ս 한국학교>

11. '김치의 날' 행사: 2024년 11월 11일 Korea Daily Times



<김치의 날을 앞두고 9일 다ս한국학교에서 깎두기 만들기 체험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김치의 날, 다솜한국학교 학생들 ‘사랑 넘어 깍두기 담갔어요’”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최미영 교장은 “학생들은 책가방 외에 도마와 앞치마를 들고 약간 흥분된 모습으로 등교했다. 기쁨반, 충성반, 열매반 학부모들이 일찍 와서 친교실에 테이블보를 깔고 학생들이 사용할 장갑과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준비해 주셨다”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김치를 기억하며, 학생들이 직접 만든 깍두기를 시식한 후, 김치를 더욱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미정 교사가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김치 사진을 보여주며 김치에 대해 수업했다.



<권미정 교사가 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치의 날, 다솜한국학교 학생들 ‘사랑 넘어 깍두기 담갔어요’”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자신들이 직접 만든 깍두기를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교실로 돌아간 학생들은 준비된 학습지를 통해 김치의 역사와 발효 음식에 대해 토의했다.

<이우안 기자>

12. '김치의 날' 행사: 2024년 11월 13일 Hyundai News USA

4 November 13, 2024 November 19, 2024

중 합

“도마와 앞치마 두르고 깍두기 만들었다”

다솜한국학교 깍두기의 날 기념 체험교육



다솜한국학교에서는 지난 11월 9일, 학생들은 책가방 외에 도마와 앞치마를 들고 약간의 흥분된 모습으로 등교했다. 깍두기를 담그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기쁨반, 충성반, 열매반 부모님들은 일찍 오셔서 친교실에 테이블보를 깔고 학생들이 사용할 장갑과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준비했다.

오전 10시, 학생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앞치마를 단정히 입은 후 도마를 들고 친교실에 모였다. 권미정 선생님께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임을 알려주시고 김치 사진을 보여주며 김치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김치 재료 이름을 하나씩 배우고, 자신들이 만들 깍두기를 구경했다. 깍두기 담그기 시범은 김미희 강사님이 진행했다.

학생들은 설명을 열심히 들은 후 부 썰기를 시작했다. 플라스틱 칼로 자르느라 약간 힘들었지만, 김치를 처음 만들어 보는 학생도 있었고, 두들기는 것이 처음인 학생도 많아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부를 썰는지, 그 조용함에 놀랄 정도였다.

김미희 강사님은 두들 썰이는 방법을 보여준 뒤, 학생들에게 절인 부와 양념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은 두들 잘 비무려서 준비된 개인 통에 넣어 담았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깍두기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처음 한 질문이 “언제 먹을 수 있나요?”였고, 강사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깍두기 맛을 본 후에는 “더 먹어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왔다.

플라스틱 칼로 부를 썰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김치를 담그는 새로운 경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매일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의 수고로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교실로 돌아간 학생들은 준비된 학습지를 통해 김치의 역사와 발효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김치를 기억하며, 학생들이 직접 만든 깍두기를 시식한 후, 김치를 더욱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랐다.

13. '김치의 날' 행사: 2024년 11월 1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KOREATIMES.COM
San Francisco - 한인사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연예

한국홈쇼핑

한국TV

한인사회

다솜한국학교 깍두기 담그기 행사

댓글 0 2024-11-15 (금)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은 9일 깍두기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학부모들이 일찍 도착해 친교실에 테이블보를 깔고 학생들이 사용할 장갑과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준비했으며 오전 10시, 학생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앞치마를 단정히 입은 후 도마를 들고 친교실에 모였다. 권미정교사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임을 알리고 김치에 관한 강의를 했다. 학생들은 김치 재료 이름을 하나씩 배우고, 자신들이 만들 깍두기를 구경했습니다. 깍두기 담그기 시범은 김미희 강사님이 진행했다. 김치를 담그는 새로운 경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진 다솜 한국학교>

14.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2024년 11월 24일 Korea Daily Times

11/27/24, 7:50 PM

SF총영사관 주최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 주요뉴스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SF총영사관 주최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23일 한인 청소년들에게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 주최로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가 열렸다.



<23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1/27/24, 7:50 PM

SF총영사관 주최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 주요뉴스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한국전 참전용사 돈 리드 씨가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를 회상하고 있다.>

특히, 치열했던 전투로 유명한 양구 지역의 '펀치볼(Punchbowl)'에서의 험난한 전투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연 후 학생들은 감사의 뜻으로 돈 리드 참전용사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11/27/24, 7:50 PM

SF총영사관 주최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 주요뉴스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한국전 참전용사 돈 리드 씨와 한인 참전 용사들.>

학생들은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후 간단한 퀴즈 대회와 전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참가 학생들은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꼭 이루어야 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이징지역의 한인 참전용사들과 다중한국학교(교장 최미영)에서는 화평반, 믿음반, 열매반 학생들이 참석했다. 또 다중 사물놀이 팀의 식전 공연도 펼쳐졌다.

15.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2024년 11월 27일 Hyundai News USA

14 November 27, 2024 December 3, 2024

종 합

HYUNDAE NEWS USA

6.25 참전용사와 함께 한 귀한 시간

한국 전쟁 관련 체험담 등 산 교육

지난 11월 23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주최한 '6.25참전용사와의 대화' 행사가 있었다. 다중한국학교에서는 화평반, 믿음반, 열매반 학생들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다중한국학교와 함께 다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했고 다중한국학교 학생들이 팀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임정택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산호세 지역의 차세대 학생들이 한국 전쟁을 알고 많은 분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음을 알도록 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전쟁기념재단의 재무로 제3세 노벨, 돈 리드(Donald Reid) 씨가 강연을 맡았다. 그는 19세에 기관차 수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배를 타고(Battle Star) 대담을 세 개나 받았다고 했다.

특히 치열한 전투로 유명한 양구 지역의 '펀치볼(Punchbowl)'에서의 험난한 전투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연 후 학생들은 감사의 뜻으로 돈 리드 참전용사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학생들은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꼭 이루어야 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중에서는 이번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소감을 작성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학습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이징지역의 한인 참전용사들과 다중한국학교(교장 최미영)에서는 화평반, 믿음반, 열매반 학생들이 참석했다. 또 다중 사물놀이 팀의 식전 공연도 펼쳐졌다.

16. 6.25 참전용사와의 대화: 2024년 11월 27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KOREATIMES.COM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San Francisco - 한인사회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연예 한국홈쇼핑 한국TV
라디오서울 한국TV H매거진 주간한국 케이독

사회일반

6.25 참전용사와 함께 한 시간

댓글 22 2024-11-26 (화)

▶ SF 총영사관 주최, 93세 노병 강사로 나서

▶ 실리콘밸리 지역 한국학교 학생들 대상



지난 23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에서 주최한 '6.25참전용사와의 대화' 행사가 있었다.

지역 한국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임정택 총영사는 산호세 지역의 차세대 학생들이 한국 전쟁을 알고 많은 분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음을 알도록 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성덕 부총장은 한국 전쟁 발발 전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의 과정, 그리고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불굴의 의지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이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전쟁기념재단의 재무로 계시는 93세 노병, 돈 리드(Donald Reid) 씨가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19세에 기관총 사수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배틀 스타(Battle Stars) 메달을 세 개나 받았다고 했다. 특히 치열한 전투로 유명한 양구 지역의 '펀치볼(Punchbowl)'에서의 험난한 전투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심장을 뛰게 했다. 강연 후 학생들은 감사의 뜻으로 돈 리드 참전용사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행사에는 베이 지역의 한인 참전용사들도 함께 참석했으며, 학생들은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후 간단한 퀴즈 대회와 전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학생들은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꼭 이루어야 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의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대한민국 알리기 활동을 통해 정규학교 교과서에서 변화된 내용과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의 교과서를 비교하고 한인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장은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정체성의 결여는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활동까지도 기피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동포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재미한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알리기와 함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의과이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과제"라고 '뿌리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7. 역사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출판기념회: 2024년 12월 17일 한국일보

11/24, 2:46 PM

koreatimes.com - 인터넷 미주 한국일보

한인사회

한국일보
KOREATIMES.COM

10번째 자체 출판 역사 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출판기념회

2024-12-17 (화)

(한인사회)

▶ 다숨 한국학교



다숨한국학교는 10번째 자체 출판 역사 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출판기념회를 지난 14일 열었다.<사진: 다숨 한국학교>

다숨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14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다숨한국학교 10번째 자체 출판 역사 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Proud Republic of Korea)'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은 지난 1년동안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정하고 국경일을 중심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역사, 한국전쟁,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통일에 관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였고, 가르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책으로 펴낸 것이다.

출판 기념식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의 축하를 최미영 교장이 대독하였다. 나성덕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프리몬트 통합교육구 김현주 교육위원 등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전담진 다숨한국학교 이사장은 역사문화 교재를 매년 발행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정체성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부록에 적힌 연구를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사 교과서를 빌려다 주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관해 실질하게 답변해준 언아라, 박준우 학생에게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며 학습지를 발간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한 담임 교사들의 의견 나눴이 있었다. 이번에 발행한 교재를 포함하여 다숨한국학교 발행 총 10권의 역사문화 교재의 디자인을 맡아온 김소연 교사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16. 역사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출판기념회: 2024년 12월 16일 Korea Daily Times

12/20/24, 1:13 AM

"차세대 정체성 교육은 우리 의무", 다숨한국학교 역사교재 출판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12/20/24, 1:13 AM

"차세대 정체성 교육은 우리 의무", 다숨한국학교 역사교재 출판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최미영 교장이 10번째 역사문화 교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 역사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출판 기념회: 2022년 12월 18일 Hyundai News USA

HYUNDAE NEWS USA

칼럼

December 18, 2024 - December 24, 2024 15

세계의식 가진 동포학생으로 성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출판기념식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다숨한국학교 10번째 자체 출판 역사 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Proud Republic of Korea)'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나성덕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프리몬트 통합교육구 김현주 교육위원 등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전담진 다숨한국학교 이사장은 역사문화 교재를 매년 발행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정체성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다숨한국학교는 10번째 자체 출판 역사 문화 교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출판기념회를 지난 14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나성덕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프리몬트 통합교육구 김현주 교육위원 등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전담진 다숨한국학교 이사장은 역사문화 교재를 매년 발행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정체성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19. 설 행사: 2025년 1월 29일 Korea Daily Times

1/31/25, 2:04 AM

다솜한국학교, 설날 행사로 차세대에게 한국전통 알려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

다솜한국학교, 설날 행사로 차세대에게 한국전통 알려

by KDT posted JAN 29, 2025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올해도 설 행사와 민속놀이 축제로 차세대에게 한국 문화와 부리를 알렸다.

25일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등교하는 학생부터 일찍 학교로 와 본인이 원하는 한복을 '다솜 한복집'에서 골라 입는 학생까지 설렘과 기쁨으로 설날을 맞았다.



<25일 다솜한국학교에서 설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북부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 한국학교의 중앙홀에 모인 전교생은 십간과 십이지 동물과 어울리는 옥십갑자 중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임을 배웠고, 남여 세배 방법과 을사년에 어울리는 덕담을 들었다.



<학생들이 십이간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어 학생들은 "많은 복을 사로잡아 BBAAM! 푸른 뱀처럼 길게~ 지혜롭게~ 힘차게~ 행복하길!"을 외쳤다.



<학생들이 체험부스에서 팽기치기(위)와 윷놀이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최미영 교장은 "매년 하는 설날 행사이지만 약간의 변화에도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또 하고 싶어요' '수업이 벌써 끝났어요'라며 재미와 아쉬움을 표현했다"며 "내년 설날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은안 기자>

20. 설 행사: 2025년 1월 31일 한국일보



San Francisco - 한인사회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연예](#)
[한국홈쇼핑](#)
[한국TV](#)
[라디오](#)

한인사회

다솜한국학교 설 행사

댓글 2025-01-31 (금) 03:46:20



다솜한국학교 설 행사에서 학생들이 십이지 동물에 대해 배우고 있다. <사진 다솜 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은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25일 설 행사및 민속놀이 축제를 함께 즐겼다.

예쁜 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일찍 등교해서 다솜 한복집에서 원하는 한복을 골라 입은 학생들도 모두 설렘과 기쁨으로 행사에 동참하였다.

우선 전교생이 중앙홀에 모여 십간과 십이지 동물에 대해 배우고, 올해는 육십갑자 중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임을 함께 외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세배하는 방법이 다름을 각각 배워 세배하고, 을사년에 어울리는 재미있는 덕담을 나누었다.

이어서 포토존 부스, 종이접기 부스, 투호 부스, 제기차기 부스, 딱지와 팽이치기 부스 등 설날 활동 부스를 차례차례 돌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스 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다시 모여 남자와 여자팀으로 나누어 대형 윷놀이를 즐겼다.

21. 설 행사: 2025년 2월 Hyundai News USA

HYUNDAE NEWS USA

학생 모두 설림과 기쁨으로 행사에 동참

다문화한국학교, 울산년 설 축제행사 개최

올해도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1월29일 다문화 성생미 민족놀이 축제를 함께 즐겼다.

예쁜 안복을 입고 동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일찍 도착해서 다문화 본교생이 준비한 떡국을 끓여 먹는 학생들도 모두 설맞이 기쁨으로 행사에 동참했다.

우선 전교생이 중앙홀에 모여 십간과 십이지 동물들 대해 배우고, 올해는 옥삼갑지 중 '갑'사년, 푸른 뱀의 해임을 함께 외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세 배는 한 배에 다문화 국가의 세 배는 하나라고 다문화의 의미를 새기고, 옥사년과 어울리는 재미를 하는 시간을 보냈다.

"갑은 사물장사야 BBAAM!"

종 합

February 5, 2025 - February 11, 2025



푸른 뱀띠엔 감자·지렁이랑·원치와·별매벼랑"

이어서 포도통 부스, 돌이끼 부스, 두루 부스, 제기차기 부스, 돌이끼 뿔이끼 부스 등 설날 활동 부스를 차례대로 돌아다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스 활동을 마친 학생들을 다 시 모여 남자와 여자를 따로 나누어 대합 홀을 배웠고, 대합 홀을 알기전 남·녀간의 도와 주고 주고한 사귀어 열성적인 파타고 만 축하하며 무대를 꾸민다.

남·녀들 게임을 하고, 다문화 어린이들 축하공연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대행인 노는 학생들 호응도 뜨거웠고, "이해는 즐거움과 '우미'인 해 끝남이다" 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노는 학생들 호응도 뜨거웠고, "이해는 즐거움과 '우미'인 해 끝남이다" 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대행인 노는 학생들 호응도 뜨거웠고, "이해는 즐거움과 '우미'인 해 끝남이다" 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사진제공: 다문화한국학교>

22. 한국역사문화 수업 [K-문학: 시]: 2025년 2월 한국일보



San Francisco - 한인사회

[☰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연예](#)
[🛍️ 한국홈쇼핑](#)
[📺 한국TV](#)
[한국T](#)

한인사회

다솜한국학교 한국문학 수업

댓글 2025-02-19 (수) 08:05:58



광복회 미 서북부지회가 15일 오를랜드 광복회관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윤형자 회장(가운데)이 2025년도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다송한국학교(교장 최미영)은 지난 16일 '한국문화-시' 수업을 열었다. 동 학교는 이번 학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컬처로 정하고, 한식, 한국문학, 한국 음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은경 교감이 시와 시조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사진 다송한국학교>

23. 한국역사문화 수업 [K-문학: 시]: 2025년 2월
Hyundai News USA

14 February 19, 2025 - February 25, 2025

칼럼

HYUNDAE NEWS USA

“한국의 정서와 감동을 담은 시와 시조 소개”

다솜한국학교, '한국문화-시' 중심으로 강의

다들 한국학교에서는 2004~2005
년과 같은 역사·문화 관련 주
제를 다뤄주려고 했고, 교사의
모략, 한국 유물 등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두 번째 시간으
로 한국학교 교사·수업이 열렸으며,
박지은 교장 선생님과 사립 시조촌
중심으로 강의·분반 진행했다.

학급들은 정구교사님과 영민지
는 배우기로, 한국 시와 시조를 읽
는 배워기로, 한국 시조와 시조를 읽
는 배워기로, 한국 시조와 시조를 읽

서만 두 번째 시가 소개된 편이며
이후 교재에서는 다뤄지지 않
은 것 같은 강독을 소개 수 있
었다. 시조는 소개하고, 학급들
처럼 나눠서 한창에 보는 시
를 보았다.

박지은 교장선생님은 풍류사
나비주 사자의 (풍류) 만화, 한
사유자의 (사자), 그리고 교원
선 정음주조 시조 (선정)를
개했다.

최하은은 왕조 시조 (풍류)

제외동포용 교재는 본별, 어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권에 이르러서야 한국 시를 다루는 단원에



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았다. 또한 영성(靈性)을 통해 보다 깊은 성장과 슬픔을 다스릴 수 있다.

정경숙씨는 「심상기분」을 통해서도 연대시라는 다른 시의 형식을 도입하고 싶었다.

불가한 리더와 겸손을 인식하고

오 이만번을 통한 겸손이 있는 시를 배우면서, 학생들은 즐겁고 느낀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학업을 위한 시를 쓰지 않고서도 무엇이든 시도 못할 거라 생각해 드는 시 작가의 불굴을 존중했고, 그 3주 동안 공동체 생활 속에서

라고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역사-문화 수업에 함께 우리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사교 및 영어로 찾아보고, 쓰고, 즐기며,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하기를 기대한다.

24. 한국역사문화 수업 [K-문학: 시]: 2025년 2월 동포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다슬한국학교에서 한국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해에 이어 올 연말까지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컬처로 정하고, 한식·한국문학·한국 음악 중심의 수업에 들어갔다.

지난 2월 16일, '한국문학-시' 수업에서는 박은경 교사(다솜한국학교 교장)가 시와 시조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현지 학생들은 정규학교에서 영문시는 배우지만, 한국 시와 시조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외동포용 교재는 문법, 어휘, 음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권에 이르러서야 한국 시를 다루는 단원에서 단 두 편의 시가 소개될 뿐이다.

이에 다솜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와 시조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낭독하고 창작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경 교사는 이날 '풀꽃'시인 나태주의 <풀꽃>, 민족시인 윤동주의 <서시>, 그리고 고려 충신 정몽주의 시조 <단심가>를 소개했다. 학생들은 짧고 쉬운 <풀꽃>을 암송하며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서시>에서는 '하늘, 바람, 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화 <동주>를 함께 보며 깊은 감동과 슬픔을 느꼈다. 정몽주의 <단심가>를 통해서도 현대시와는 다른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배웠다.



25. 개교 21주년 기념 운동회: 2025년 3월 17일 Korea Daily Times

3/20/25, 3:50 PM

'무력무력' 자라 성년 된 다솜한국학교, 개교 21주년 맞아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무력무력' 자라 성년 된 다솜한국학교, 개교 21주년 맞아

by KDT posted MAR 17, 2025

역사와 전통의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올해 개교 21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시화 그리기 대회 및 기념 운동회'가 15일 열렸다.

북부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은 운동회를 격년에 한 차례씩 치르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개교 21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해졌다.



<15일 다솜한국학교가 올해 개교 21주년을 맞은 가운데 '시화 그리기 대회 및 기념 운동회' 등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미영 교장은 "운동회를 손꼽아 기다리던 학생들이 밝은 얼굴로 학교에 모였"다면서 "앞으로도 다솜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한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개교 21주년 축하 노래와 함께 케이크의 촛불을 불며 어엿한 '성인'이 된 다솜의 생일을 경축했다.

1교시에는 학생들이 지난달에 배운 한국 시와 시조를 떠올리며 학교 밖으로 나가 풀꽃을 관찰했다. 이들은 색깔과 향기를 느끼면서 자신만의 시를 써 내려갔다.



25. 개교 21주년 기념 운동회: 2025년 3월 19일 Hyundai News USA

HYUNDAI NEWS USA

종합

March 19, 2025 - March 25, 2025 17

개교 21주년 기념 시화 그리기 대회 및 기념 운동회 개최 다솜한국학교 학생들, 한국문화 배우고 직접 체험

시화대회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개교 21주년을 맞아 시화 그리기 대회와 기념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동회는 한국기 아레나에서 진행되며, 다솜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운동회는 한국기 아레나에서 진행되며, 다솜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운동회는 한국기 아레나에서 진행되며, 다솜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운동회 참가자들은 한국기 아레나에서 진행되며, 다솜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운동회는 한국기 아레나에서 진행되며, 다솜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운동회 모습



시화 그리기 대회

25. 개교 21주년 기념 운동회: 2025년 3월 20일 한국일보

3/20/25, 10:03 PM

koreatimes.com - 인터넷 미주 한국일보

San Francisco - 한인사회

다솜한국학교, 개교 21주년 기념

한국일보
KOREATIMES.COM

2025-03-20 (목) 08:43:58

(한인사회)

▶ 시화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개교 21주년을 맞아 열린 다솜한국학교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사진: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개교 21주년을 맞아 시화 그리기 대회와 기념 운동회를 지난 15일 교내에서 개최했다.

1교시에는 학생들이 시화를 그리는 시간으로 지난달에 배운 한국 시와 시조를 떠올리며 학교 밖으로 나가 풀꽃을 찾아보고, 풀꽃을 관찰하며 시를 써 내려갔다.

이어진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밴다를 두르고 응원전을 펼쳤다. 경기 종목으로는 이만삼각, 공주머니 던지기, 정반으로 풍선 옮기기, 큰 줄넘기, 장애물 달리기, 점보 옮기기 등이 진행됐다.

운동회 청백전은 청팀의 승리로 끝났고, 모두 함께 축하 케이크와 간식을 나누며 즐거운 개교기념일을 보냈다.

26. 한국역사문화 수업 [K-음악: 아리랑]: 2025년 4월 7일 동포뉴스

재외동포신문
HOME > 한인광장

다솜한국학교, '아리랑 민요'로 배우는 한국음악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25.04.07 12:08

『K-컬처』 세번째 수업...정선·진도·밀양 등 지역별 아리랑도 감상



지난 4월 5일 다솜한국학교는 '아리랑 민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수업 진행했다. [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4월 5일 'K-컬처' 세번째 강의로 '아리랑 민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한국음악 수업을 진행했다.

다솜한국학교는 2024~2025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컬처'로 정하고, 한식·한국문화·한국음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희조 선생님이 진행한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소고반 활동과 이전 한국음악 수업에서 배운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의 가사를 익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이 구전 민요로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북캘리포니아의 온화하고 맑은 기후 속에서 탄생한 '북캘리포니아 아리랑'은 어떤 모습일지, 비가 잦은 시애틀 지역의 아리랑은 어떤 감성을 담고 있을지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지역별 아리랑을 감상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러온 다양한 아리랑의 변천도 살펴봤다. 조선 말기 선교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험버트가 채보한 아리랑 악보, 일제강점기 제작된 영화 '아리랑', 월드컵 응원가로 재해석된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음악, 광복군 아리랑, 그리고 KCON 무대에서 BTS가 부른 아리랑 등을 들으며, 아리랑이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로 뭉치는 힘을 지닌 노래였음을 되새겼다.

28. 한국역사문화 수업 [K-음악: 아리랑]: 2025년 4월 11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KOREATIMES.COM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한인사회

전체 사회 경제 오피니언 KT Local News 한국홈쇼핑 한국TV KTMF 한

한인사회

아리랑 민요로 대한민국 응원

댓글 2025-04-11 (금) 10:17:42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2024~2025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컬처'로 정하고, 한식·한국문화·한국음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세 번째 수업으로 '아리랑 민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 학생들은 소고반 활동과 이전 한국음악 수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의 가사를 익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수업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이 구전 민요로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음을 배웠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27. 한국역사문화 수업 [K-음악: 아리랑]: 2025년 4월 9일 Hyundai News USA

HYUNDAE NEWS USA

종합

April 9, 2025 - April 15, 2025 17

"아리랑 민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다솜한국학교,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컬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2024~2025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주제를 'K-컬처'로 정하고, 한식·한국문화·한국음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소고반 활동과 이전 한국음악 수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의 가사를 익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북캘리포니아의 온화하고 맑은 기후 속에서 탄생한 '북캘리포니아 아리랑'은 어떤 모습일지, 비가 잦은 시애틀 지역의 아리랑은 어떤 감성을 담고 있을지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지역별 아리랑을 감상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러온 다양한 아리랑의 변천도 살펴봤다.

조선 말기 선교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험버트가 채보한 아리랑 악보, 일제강점기 제작된 영화 '아리랑', 월드컵 응원가로 재해석된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음악, 광복군 아리랑, 그리고 KCON 무대에서 BTS가 부른 아리랑 등을 들으며, 아리랑이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로 뭉치는 힘을 지닌 노래였음을 되새겼다.

학생들은 이번 '아리랑'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내 다른 한국학교 학생들에게도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아리랑 행진곡'을 기획했다. 다양한



연명으로 구성된 팀이 보조교사의 지도 아래 장구, 소고, 리듬악기 등을 활용해 개사한 아리랑을 연주하며 소고 연상을 제작했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아리랑을 통해 이어지는 한국인의 정서와 정신을 되새겼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학생들은 중국 화교에서도 아리랑을 알리고, 한류 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사진제공: 다솜한국학교>

29. 종강식 및 졸업식 개최: 2025년 5월 20일 동포뉴스

재외동포신문
HOME > 한인광장 > 북미

'2024-2025 다솜한국학교 종업식 및 졸업식' 개최

A 박월의 기자 | 승인 2025.05.20 19:27

소고춤, 시낭송,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 선보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5월17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2024~2025학년도 종강식 및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최미영 교장선생님(앞줄 왼쪽에서 첫번째)은 졸업생들과 함께 대통령 봉사상 등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5월17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 '2024~2025학년도 종강식 및 졸업식'을 개최했다.

▶ 2024-25학년도 학생



김이든



김이룬



김재용



김재희



김지아



나예준



나재연



명소정



바장이마리용



박주연



박채린



송예담



송주담



송하담



송해담



안아민



윤세인



윤재윤



윤종현



윤지윤



이서윤



이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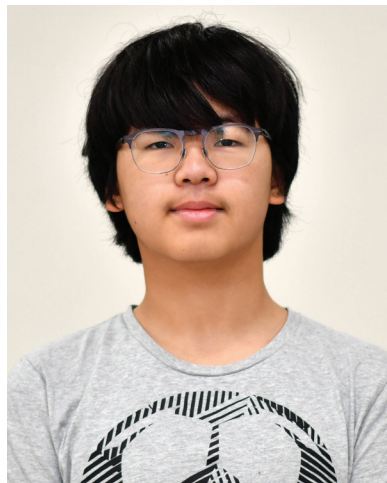
이재원



이정운



이주환



이준



이하울



장시온



장예림



장예진



정예나



정에서



정우빈



정우주



조경민



조다나



조새린



조아영



최하준



한서진



한제인

▶ 2024-25학년도 보조교사



남하은 보조교사



박준우 보조교사



안아라 보조교사



오탈양 보조교사



이현일 보조교사



장하진 보조교사

▶ 2024-25학년도 특별활동 교사



교사 장혜경



교사 김일현



교장 최미영



교감 박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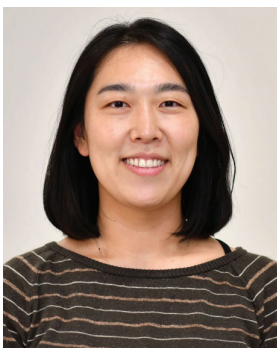
교무 권미정



웹간사 김원구



교사 원은경



교사 안지은



교사 조은미



교사 정희조



교사 조은아



교사 전누리



교사 김소연



목사 박석현



이사장 전남진



직전 이사장 정철화

다솜 학생 온라인 등록 안내

본교에서는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학생 정보 관리와 등록비 결제 등의 교무 행정들을 전산화하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웹을 통한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생 등록비를 신용카드 혹은 개인 수표로 결제
- 학부모의 계정(User Account)에 과거의 모든 학생 등록 정보와 영수증 PDF 파일 보관
- (다년간 재학 후 졸업이나 수료한 경우에 계정을 통해 졸업장 혹은 수료증 PDF 발급)
- 학부모의 계정을 통한 공지 및 소식 전달

학생 등록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8월말까지이며 정원이 차면 바로 마감됩니다. (정원이 차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 받고, 5월 15일부터 신입생 등록을 받습니다. 재학생 학부모는 학생을 등록했던 User Account로 로그인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솜 웹에 User Account가 없는 학부모는 우선 User Account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User Account를 신청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고 이메일에 들어 있는 웹 링크를 클릭해 답해야 User Account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솜 웹 “커뮤니티 / 웹 이용 안내” 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혹 Username이나 Password를 잊어서 로그인을 못 하시는 분을 위한 도움말도 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User Account로 로그인한 후에 학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해 웹 이용 안내 페이지에 준비된 도움말 제목들입니다. 이 도움말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웹 계정 만들기 (Creating User Account)
- 로그인 아이디(username)나 비밀번호(password)를 잊었을 때
-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 (Registering Students)
- 학생 등록 확인, 수정, 취소 및 PDF 영수증 내려받기
- Offline Payment 등록을 Credit Card로 결제하기

아래 그림은 온라인 학생 등록 메뉴 페이지입니다. 가을학기과 1년 등록의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셔야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잘 읽어 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보조 교사는 학교와 미리 의논한 학생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gistration

Student Registration 학생 등록

Past Registration Events

Login Form

Hi 학부모,

Log out

User Menu

Your Profile

Student Registration (학생 등록)

Event	Class Begin	Register
2025-2026 One Year (Fall+Spring) (1년 등록)	09-06-2025 9:30 am Sat	Register (Students)
2025-2026 Fall Semester (가을학기 등록)	09-06-2025 9:30 am Sat	Register (Students)
2025-2026 Teaching Assistant (보조교사 등록)	09-06-2025 9:10 am Sat	Register (Students)



가을 학기	2025년 9월 6일 ~ 2026년 1월 24일
봄 학기	2026년 1월 31일 ~ 2026년 5월 16일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등록 시작	5월 1일부터 (재학생)/ 6월 1일부터 (신입생)
대상 학년	만 4세 이상 (해당연도 2월 1일 기준)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www.dasomks.org)
문의	최미영 교장, 박은경 교감 (info@dasomks.org)



